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체육학박사 학위논문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강 상 욱

국문초록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

강 상 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현대 사회에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최근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나르시시즘 연구의 한계점인, 나르시시즘의 특정한 부분만을 측정하여 연구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된 나르시시즘 척도들은 모두 일반인 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모델(Krizan & Herlache, 2017)을 참고로 나르시시즘의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개념을 정립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개인종목, 단체종목의 국가대표, 프로, 대학에 소속된 전·현직 지도자 및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n=10)과 개방형 설문조사(n=72)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동선수들이 훈련 및 시합상황,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 특성에 관한 내용들이 도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과

민성, 자기방어성 총 4요인으로 정립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1>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최초 41개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36문항으로 구성된 예비검사지를 제작하였다. 개인종목 146명, 단체종목 202명, 총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문항 적합성 및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34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이후 표본분할법(sample-split approach)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174명)에 활용되었으며. 타당도 검증에는 34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예비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과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문항 별 상관계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할 때 기준으로 둔 .30을(Chang, Fresco, & Green, 2014; Lawrence et al., 2004) 넘지 않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문항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두 번에 걸쳐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난 19문항을 제거한 뒤 최종 4요인 17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상대적합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이후 전체 자료를 활용한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해서 척도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Cronbach' α = .852).

이후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성별과, 종목유형에 따른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까지 검증되어 집단 간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집단 차이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나르시시즘 성격특성 파악을 통해 지도자들에게는 선

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자들에게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과
관련 변인들 간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나르시시즘, 성격특성,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

학 번 : 2014-30518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3. 연구문제	10
4. 용어의 정의	11
II. 이론적 배경	12
1. 나르시시즘의 이해	12
1) 나르시시즘의 개념	12
2) 나르시시즘의 발달	13
3) 나르시시즘의 시대적 변화	14
4) 나르시시즘의 관련 이론	16
5)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20
2.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23
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23
2)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NS)	23
3) The Psychological Entitlement Scale (PES)	24
4)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24
5) The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Questionnaire (NARQ)	25
3. 나르시시즘 관련 국외 연구동향	26
4.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30
1) 일반영역에서의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30
2) 스포츠영역에서의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31
III. 연구 방법	34

연구 I.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34
1. 연구 참여자	34
1) 심층 면담 참여자	34
2) 개방형 설문 참여자	35
2. 연구절차	37
1)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위한 준비과정	37
2) 심층면담	37
3) 개방형 설문	38
3. 자료분석	40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41
연구 II.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42
1. 연구대상	42
2. 연구절차	44
3. 측정도구	46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	46
2)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	46
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46
4. 자료분석	47
IV. 연구 결과	48
연구 I.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48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탐색	48
1) 심층면담	50
(1) 자기중요성	50
(2) 자기과시성	53
(3) 자기과민성	56
(4) 자기방어성	58

2) 개방형 설문	60
(1) 자기중요성	61
(2) 자기과시성	62
(3) 자기과민성	63
(4) 자기방어성	63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65
연구Ⅱ.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66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예비문항 개발	66
2.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66
3. 문항 적합성 및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 점검	70
4. 확인적 요인분석	73
5. 신뢰도 분석	77
6. 개념타당도	79
1) 집중타당도	79
2) 판별타당도	81
7. 공인타당도	82
8. 교차타당도 검증	83
9. 집단 간 구인동등성 검증	85
1)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86
2) 종목유형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87
V. 논의	88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 개념	88
1) 기존 나르시시즘의 구성개념 확인 및 보완	88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94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94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타당화	94
VI. 결론 및 제언	98
1. 결론	98

2. 제언	99
참고문헌	101
부록	117
<부록 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17
<부록 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19
<부록 3>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120
<부록 4>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	121
<부록 5>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122
<부록 6>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	123

표 목차

표 1. 나르시시스트 성격에 대한 설명	15
표 2.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 비교	22
표 3. 나르시시즘 관련 국외 최신 연구 동향(2019)	27
표 4. 심층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5
표 5. 개방형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36
표 6.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의 주요 질문 내용	39
표 7. 예비 검사지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43
표 8. 심층면담 코딩 결과	49
표 9. 자기중요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61
표 10. 자기과시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62
표 11. 자기과민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63
표 12. 자기방어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63
표 13.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64
표 14.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예비문항	67
표 15.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적합성	72
표 16.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3
표 17.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4
표 18.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74
표 19. 모형분석의 적합도 기준	75
표 20.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78
표 2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의 집중타당도 결과	80
표 22.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결정계수 및 AVE 값	81
표 23. 운동선수 나르시시즘과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 간의 상관계수	82
표 24. 측정도구의 교차 타당성 검증	84
표 25.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86
표 26. 종목유형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87

그림 목차

<그림 1>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Concept	17
<그림 2> Narcissism Spectrum Model	18
<그림 3> 측정도구 개발 절차	45
<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	7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을 의미한다. 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 성격심리학은 수 세기 동안 심리학자들에게 각광을 받아왔으며, 스포츠심리학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성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 보았고,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성격이 좋다, 나쁘다와 같이 일반 대중들이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성격은 성격 심리학자들의 견해와는 사뭇 다르다. 물론 성격에 대한 정의의 차이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심리학자들은 Allport(1961)가 정의한,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역동적 심리구조’를 따라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최근 가장 적절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Pervin(2003)의 성격에 대한 정의는 “성격은 개인의 삶에 방향성과 형태(응집성)를 부여하는 인지, 정서 및 행동의 복잡한 조직체이며, 신체와 마찬가지로 성격은 구조와 과정이 있고 선천성(유전)과 후천성(경험)을 둘 다 반영하고 현재와 미래의 구성물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을 포함하는 과거의 영향도 포함되어 있다”이다.

성격은 어떤 사람의 행동, 감정, 태도, 욕구, 동기 및 의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라고 하는 모든 요소들과 다 연결되어질 뿐 아니라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용된다. 심리학 분야에서 성격연구는 초기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신역동 이론, 현상학적 이론, 성격특질 이론, 인지이론, 사회인지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성격과 수행력을 연관 지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어지고 있으며 메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업능력과 직업능력이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혀졌다(Barrick & Mount, 1991; Poropat, 2009). 체육학 분야에서도 성격은 운동선수들의 장기적 성공 및 시합 전, 시합 중, 시합 후,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있다(Allen & Laborde, 2014). 이를 통해, 성격이 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매우 설득적인 것으로 보이며, 선수들의 수행력 향상을 위해 성격은 주목해야할 변인으로 사료된다.

한편, 문화심리학의 공동구조모형(mutual constitution model; Kitayama & Markus, 1994)에 따르면 문화의 변화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wenge(2000)는 1952~1993년생들을 대상으로 출생 코호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대가 올라갈수록 불안과 신경질적 성향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성격에 내재화 된다고 보았으며, 성격적 특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론가들과 학자들은 미국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antos, Varnum, & Grossman, 2017). 사회적 규범이 완화되었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편부모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다(Fukuyama, 2017; Myers, 2001; Seligman, 1990). 위와 같은 변화는 사람들을 더욱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만들었으며(Roberts & Helson, 1997; Twenge, 2001) 이로 인해 흔히 안 좋은 성격 특성으로 알려진 나르시시즘이 증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Lasch, 1979). 실제로 1982~2008년생 미국 대학생들(N=49,818)을 대상으로 출생 코호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이 세대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밝혀냈다(Twenge & Foster, 2010).

과거 사회심리학자들이 문화와 사고관 등을 나눌 때 동양과 서양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문화로 구분하며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어떠한가? 과학의 진화와 기술문명은 발

달하였지만, 인간의식의 진보를 동반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현대의 인간은 과거의 인간보다 더욱 도덕적, 이타적, 윤리적이지 못하다(박선영, 2016). 한국 사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기기들은 나르시시즘 성향이 증가하기에 좋은 환경을 보여준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현대인들의 나르시시즘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uffardi & Campbell, 2008).

이와 같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에게 상호조화를 강조하는 집단주의 사고방식의 부모와는 다르게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Keller et al., 2004). 부모들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와 같은 말을 하며 자기 아이를 남들과 다르게 구분하려고 들며 과한 사랑을 주게 된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이에게 특권의식을 심어주게 되며, 자기중심 세대(Generation me)라 불릴 정도로 자녀들의 나르시시즘 성향을 매우 높이게 된다(Twenge & Foster, 2010).

실제로 부모들은 과거에 비해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욱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며(Twenge, Abebe, & Campbell, 2010), 인기 있는 노래의 가사 속에도 개인주의적이고 나르시시스트한 가사들이 등장하고 있다(DeWall, Pond, Campbell, & Twenge, 2011). 이를 통해 개인주의적 성향을 띄는 자녀들이 생기게 되고,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녀를 키워 점차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바뀌게 된다. 앞서 미국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가므로 나르시시즘 성격적 특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나르시시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도 나르시시즘이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앞선 연구에서 Twenge가 사용한 시교차적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를 연구하였다(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 박선웅, 2014). 그 결과, 1999-2001년(NPI:15.98)부터 2011-2014년(NPI:17.35)까지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구성요인중 하나로, 그

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연관 지어 독일의 정신의학자 Nacke(1899)가 만들어 냈으며, 이후 Freud(1914, 1957)가 심리학 분야로 가져오게 되었다. “나르시시스틱 성격”은 Jones(1913)의 초기 "신 콤플렉스(God Complex)"라고 불렀던 자기관여, 거만함, 특권의식 특성이 높고 공감력이 부족하며,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나르시시즘을 성격 구조, 성격 특성의 구성, 또는 극단적 성격 장애에 중점을 두고 이론적 개발과 경험적 연구들을 진행해 나갔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Kernberg, 1985; Kohut, 1971; Levy, Ellison, & Reynoso, 2011; Miller & Campbell, 2010; Millon, 1998; Raskin & Hall, 1979; Ronningstam, 2005; Wink, 1991).

흔히 나르시시즘은 병적이고 부정적인 성격특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나르시시즘이 반드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Kohut, 1971; Wink, 1991). 실제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아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Rhodewalt, Madrian, & Cheney, 1998) 이상적 자아와 실제 자아와의 차이가 적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우울해 진다는 연구결과를 통해(Rhodewalt & Morf, 1995) 나르시시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나르시시즘의 구성요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설명되어 왔다. 현대에 들어와서 나르시시즘의 대표적 속성으로는 자만심과 과시행위, 지나친 자신감과 같은 웅대성(grandiosity)과 방어적, 억울함과 같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병리적, 사회/성격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 요인을 설명 및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Cain, Pincus, & Ansell, 2008).

나르시시즘은 병리학에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틱 특성을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이론에서는 중요하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대부분의 성격 척도는 앞서 언급한 특성

이나,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Hyler, 1994; Pincus et al., 2009; Raskin & Hall, 1981)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이후 정신역학(Ronningstam, 2011), 사회성격 심리학(Miller & Campbell, 2008), 조직심리학(Judge, LePine, & Rich, 2006) 경영(Chatterjee & Hambrick, 2007) 등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한편, 나르시시즘은 학자들에게 있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나르시시스트 성격은 아직까지 심리학자들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되기가 쉽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도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은 학자들에 따라 자아 중심의 동기 부여 상태, 심리적 발달의 정상 단계, 성격 특성의 구성, 성격 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나르시시즘 성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나르시시즘의 본질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게 된다(Brown, Budzek, & Tamborski, 2009). 이와 더불어,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도구들 또한 각각 개념의 특정한 부분만을 측정하고 있어 나르시시즘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화를 하기에 제한되며, 나르시시즘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모호하게 만들게 된다(Krizan & Herlache, 2017). 이에 Krizan 와 Herlache(2017)는 나르시시즘 개념에 대한 이론의 통합 및 측정도구의 통합을 위해 공통된 특성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모델(Narcissism Spectrum Model:이하 NSM)을 개발 하였다.

NSM은 광범위한 성격, 사회 심리학적, 임상적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제안된 모델로써 임상적으로 탄생한 나르시시즘의 기원을 존중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용하고, 연속성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반영하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기존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Krizan & Herlache, 2017). NSM을 통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웅대성(접근적)과 취약성(회피적)의 정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즉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모델에 따르면, 나

르시시즘 성격은 자기중요성, 특권의식, 오만을 핵심으로 나르시시스트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포괄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한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도 성격적 특성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초기 성격 연구는 운동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등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운동선수를 만들고 우수선수의 성격적 특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후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운동선수의 성격적 특성이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선수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으며(Allen, Greenless, Lain & Jones, 2011; Gee, Marshall, & King, 2010; Morgan & Johnson, 1978),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성격차이가 경쟁상황에서의 수행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Geukes, Mesagno, Hanrahan, & Kellmann, 2012).

하지만, 앞서 언급한 현대사회의 중요한 성격적 특성인 나르시시즘에 관해서는 과거 스포츠와 수행력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운동선수들의 수행력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에 의해 나르시시즘 성격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Guekes, Mesagno, Hanrahan, & Kellmann, 2012; Matosic et al., 2017; Roberts, Callow, Hardy, Woodman, & Thomas, 2010; Roberts, Woodman, & Sedikides, 2018).

나르시시즘과 수행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대체로 평균보다 수행력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지능(Gabriel, Critelli, & Ee, 1994), 그룹 상호작용 과제(John & Robins, 1994), 발표(Robins & John, 1997), 대인민감성(Ames & Kammrath, 2004), 그리고 상사가 평가한 직무수행력(Judge, LePine, & Rich, 2006)에서 뛰어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Wallace와 Baumeister(2002)의 연구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수행력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과제를 수행함

에 있어 자신에게 개인적 영광(영예)이 생기는 기회, 즉 어려운 일을 할 때(압박이 있을 때) 또는 대중들 앞에 나서는 상황일 때 자기 자신에 강한 동기부여를 주어 수행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Morf, Weir, & Davidov, 2000; Sedikides & Gregg, 2001).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수행력을 내는 상황은 크게 연습상황과 시합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의 연구결과와 같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압박을 느끼거나 대중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는 상황일 때 수행력이 높아진다고 본다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나르시시즘 특성은 연습상황에서 보다는 시합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핸드볼 선수들이 던지기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습 때보다 1000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촬영까지 했을 때 더욱 높은 기량을 보였으며(Guekes, Mesagano, Hanrahan, & Kellmann, 2013), 나르시시즘이 높은 피겨전수의 경우도 연습 때 실시한 연기보다, 긴장감 있는 국가대항전에서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Woodman, Hardy, Davis, & Wallace, 2013). 이를 통해, 나르시시즘과 수행력의 관계는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르시시즘 특성은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개인의 수행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선수의 나르시시즘 성향은 연습-시합상황 뿐만 아니라, 코치의 행동에 따라서도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Arthur와 그의 동료들에(2011) 따르면, 팀을 중시하며 기대를 가지고 모두를 격려해 주는 코치행동의 경우 나르시시즘이 높은 선수들이 노력하는데 있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각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대하는 지지유형은 나르시시즘이 높은 선수들에게 있어 동기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르시시즘 특성은 선수들의 수행력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수들의 나르시시즘을 측정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웅대성 측면만이 강조된 NPI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한편, NPI 측정도구는 정신병 진단을 위해서 개발된 검사지인 (3rd ed.; DSM-III; APA, 1980) 취약성을 포함한 나르시시스틱 성격 장애(Raskin & Hall, 1979)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연구들에서 쓰이는 것은 웅대성과 특권의식이 강조된 축약형이며(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강제선택법을 사용한 문제와 더불어 불규칙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Brown, Budzek, & Tamborski, 2009)과 단순히 합점수를 사용하여 높고 낮음을 측정하고 .42~.75의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Trzesniewski, Donnellan, & Robins, 2008).

더 나아가 나르시시즘은 웅대성 하나의 측면만을 가지는 특성이 아니라, NSM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기중요성을 중심으로 넓게 퍼진 스펙트럼 안에서 웅대성과 취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므로, 선수의 나르시시즘을 온전히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앞선 연구결과들을 일반화 시키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학자들은 스포츠 성격이 정신 병리학 또는 일반 심리학 측정도구로부터 벗어나 스포츠 환경에 맞는 운동선수용 성격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artens, Vealey, & Burton, 1990).

과거 나르시시즘은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특성만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성격특성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동선수들(타이거 우즈,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등)의 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개인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한 연구가 체육학계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흔히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자기에(self-love)로 잘못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에는, Campbell, Rudich & Sedikides(2002)에 의해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나르시시즘을 자기에로 동일시하고 번역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나르시시즘이

자기애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명칭인 나르시시즘을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한 개념정립과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검사 도구개발을 통해 선수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와 향후 스포츠에서 성격 관련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성격 특성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문헌들과 선수 및 지도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개념을 정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한다.
 -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개념구조는 어떠한가?
-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를 개발한다.
 -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 (2)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4. 용어의 정의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Athlete' s narcissism)

나르시시즘이란 자기중요성을 중심으로 넓게 퍼진 스펙트럼 안에서 웅대성과 취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Krizan & Herlache, 2017)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이란 ‘운동선수가 훈련 및 시합, 일상상황에서 자기중요성을 중심으로 자기과시성, 자기과민성, 자기방어성을 보이는 성격특성’으로 정의한다.

2) 외현적 나르시시즘(Overt narcissism)

자신을 내보이기 좋아하는 과시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3) 내현적 나르시시즘(Covert narcissism)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예민한 성향을 의미한다.

4) 나르시시스트(Narcissist)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다.

5) 자기에(Self-love)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을 포함한다.

6) 개인주의(Individualism)

개인의 주의 집중이 "개별적인 나"에 맞춰지며, 개인의 이득이 아닌 "개인 그 자체"에 집중하는 신념을 의미한다.

7) 이기주의(Egoism)

개인의 주의 집중이 본인의 이득 추구에 과도할 정도로 집중되어있는 성향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이해

1) 나르시시즘의 개념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구성요인중 하나로,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로마의 작가인 Ovid(43 BC-AD)에 의해 나르시시스 이야기로 알려졌다. 네메시스 여신이 나르시시스가 숲속의 에코요정의 사랑을 거부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빠져나올 수 없던 나르시시스는 결국 물에 빠지게 되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하여 자기와 같은 이름의 꽃인 나르키소스 즉 수선화가 된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연관지어 독일의 정신의학자 Nacke(1899)가 나르시시즘이란 말을 만들어 냈으며, 이후 Freud(1914, 1957)가 심리학 분야로 가져오게 되었다. “나르시시스틱 성격”은 Jones(1913)의 초기 "신 콤플렉스(God Complex)"라고 불렸던 자기관여, 거만함, 특권의식 특성이 높고 공감력이 부족하며,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나르시시즘은 원래 임상적 장애로 개념화되며 특수증상을 진단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일반 심리학에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나르시시즘을 정상 집단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개인차 변수로 개념화 하여 성격 심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Campbell, Reeder, Sedikides, & Elliot, 2000; Judge, Lepine, & Rich, 2006; Morf & Rhodewalt, 2001). 실제로, 나르시시즘은 누구든지 놓일 수 있는 연속적인 차원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임상적 구성 일 필요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Miller & Campbell, 2010).

2) 나르시시즘의 발달

나르시시즘의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초창기에 나르시시즘은 Kernberg(1985)와 Kohut(1971)의 견해에 따라 부모의 애정과 사랑의 결핍으로 생긴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Kernberg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포기와 그것으로 인한 영아의 분노로부터 과장된 자기 개념이 발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Kohut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부터 비롯되며,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나르시시즘 특성이 생긴다고 하였다.

한편, Millon(1981)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르게 오히려 부모의 사랑과 감탄(존경)이 과해서 나르시시즘이 발달된다고 하였으며, 과한 관심을 주는 부모들은 자식을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사소한 것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적대감과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두 가지 관점의 공통점은 부모-자녀 관계의 역기능으로부터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중단연구를 통해 나르시시즘의 발달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한 애착이 원인이 되어, 그들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믿고 남들보다 특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Brummelman et al., 2015).

3) 나르시시즘의 시대적 변화

초기 의학적 접근에서의 나르시시스트 성격은 자기중심적, 허영심, 공감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되었다(Jones, 1913; Waelder, 1925). 심리학으로 와서는 야망, 공격성, 리더십, 수치심, 분함, 관심을 구하는 특성으로 알려졌으며(Alexander, 1938; Freud, 1955; Jones, 1913; Murray, 1938; Nemiah, 1961; A. Reich, 1960; W. Reich, 1949), 현대의 나르시시즘의 정의는 폭 넓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적, 외모적 모습 또는 능력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존경” 으로 나타난다.

의학적 관점에서 나르시시즘은 웅대적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들(허영심, 과시적, 과신)과 취약적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들(방어적, 분함)로 구분된다고 하였다(Cain, Pincus, & Ansell, 2008). 비록 이러한 성격적 묘사가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개인들의 특성이지만, 초기 연구자들에 의해 웅대성은 열등감에 대한 역동적 반응, 또는 나르시시스트 욕구에 대해 충족되지 못한 대서 오는 수치심으로 정의되었다(Freud, 1914/1957; Levy et al., 2011).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르시시스트를 자만심이 강하고 뽐내기를 좋아하는 반면, 자신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Bosson et al., 2008).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나르시시즘의 특성에 대해 두 가지 모순된 개념(우월성에 대한 믿음, 부족함에 대한 감정)이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하였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설명은 과거부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랐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초기 나르시시스트 성격에 대한 설명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였다(표 1; Levy et al., 2011).

일반적으로 Henry Murray(1938)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본 정의에 기반을 두어 첫 번째 나르시시즘 측정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취약성과 웅대성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여러 이론들에 의해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웅대성과 취약성 측면의 중요성이 각기 다르며, 각각의 역할에 대해 다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ain et al., 2008).

표 1. 나르시시스트 성격에 대한 설명

연구자	설명
E. Jones(1913)	이들은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길 원하며, 미스터리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한다. 노출되지 않고 집에 혼자 머무는 것을 좋아하며, 사회적이지 않고 외부의 일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중적인 행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직감에 충실하며, 자기주도적 성향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전능하다고 여긴다. 새로운 지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R. Waelder(1925)	자신이 남들 보다 우월하다는 태도로 대하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정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사람 자체는 본인과 다르다고 생각. 자신이 독립적이라 생각하며,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겨서 본인의 잘못된 점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S. Freud(1931/1955)	모든 관심은 자아보호가 우선이며,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을 싫어한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당히 상대방에게 과할 정도로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 자기가 사랑 받는 것 보다 자신이 사랑 주는 것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변화를 위해 자극을 주길 원하며, 기존에 유지되던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H. Murray(1938)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모든 긍정적 칭찬에 대한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직접적: (1) 자기몰두, 자기예찬, 자기연민 (2) 우월한 감정을 가지며, 망상적 (3) 자신에게만 관심, 열망이 집중되었으면 하는 욕구가 있다. (4) 의심이 많고 과민반응 간접적: (1)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이익만을 추구하며, 권력을 지배 및 행사하려 하는 성향 (2)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며, 의심하며 오해하는 성향 (3) 자아중심적이고 보이고 싶어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주관적(본인위주)이다.

출처: Krizan & Herlache(2017), Levy et al.(2011)

4) 나르시시즘 관련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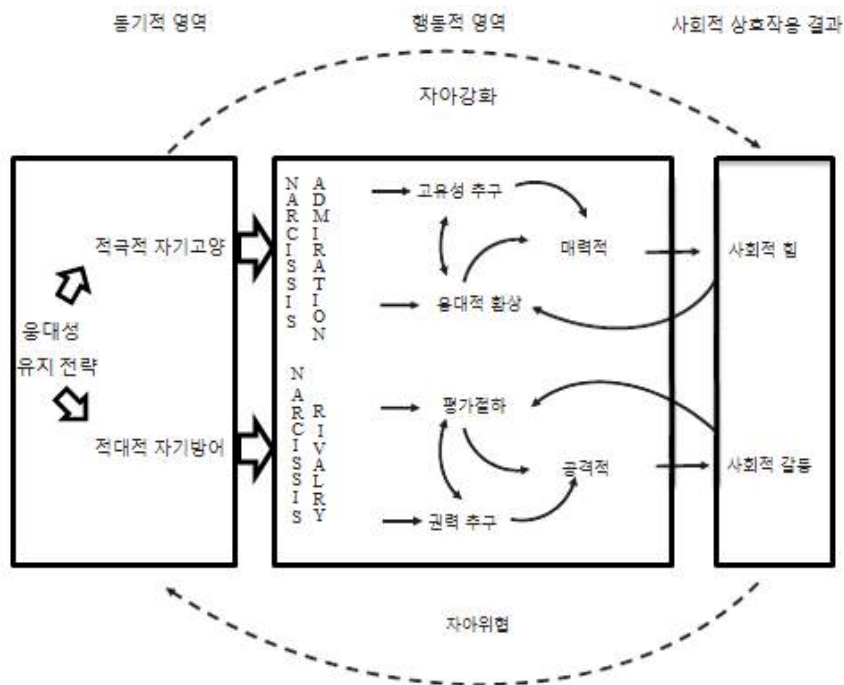
나르시시즘은 병리학에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트릭 특성을 의학계에서 정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 이론에서는 중요하다. 실제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대부분의 성격 척도는 앞서 언급한 특성이나,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Hyler, 1994; Pincus et al., 2009; Raskin & Hall, 1981)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이후 정신역학(Ronningstam, 2011), 사회성격 심리학(Miller & Campbell, 2008), 조직심리학(Judge, LePine, & Rich, 2006) 경영(Chatterjee & Hambrick, 2007) 등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현대의 이론은 크게 구별된 척도의 사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르시시스트 (narcissists)"는 주어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가 NPI에 의해 평가된 나르시시즘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선 웅대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부터 살펴보겠다.

나르시시즘의 자기 규제적 프로세스 모델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규제 전략의 사용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부풀린 자기표현을 한다(Morf & Rhodewalt, 2001). 그러나 이들이 웅대하고 권위 있는 자아상에서 파생됨에 따라 이러한 전략은 종종 타인을 멀게 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자아실현 주의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피드백을 궁극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반적으로, NPI에 관한 경험적 증거는 타인을 추방하는 경향, 자신의 성공과 공헌을 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에 대한 부풀어 오르고 관대한 자기 개념이 오만하고, 과시 행위적이고, 때로는 경멸적인 행동의 주요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전에 밝혀진 바와 같이, 숨겨진 취약성이 반드시 그러한 웅대한 자아상의 근간을 이루는 증거는 거의 없다(Bosson et al., 2008; Krizan & Johar, 2015).

다음 이론적 설명은 Extended agency model of narcissism 이다 (EAMN, Campbell & Foster, 2007). 이 모델은 웅대성을 활용하여 자

기조절 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기술, 내적정신 전략을 통해 나르시시즘의 존중감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자기조절 전략을 활용한 웅대성은 사람의 초기관계, 단기간 상호 작용과 같은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Campbell & Campbell, 2009). 이 견해는 웅대성이 사회적 목적과 지위에 대한 추구를 촉진시키는 기능적 방향성을 구체화한다는 현재의 제안과 완전히 일치한다. 한편 이 모델은, 나르시시즘의 화려한 긍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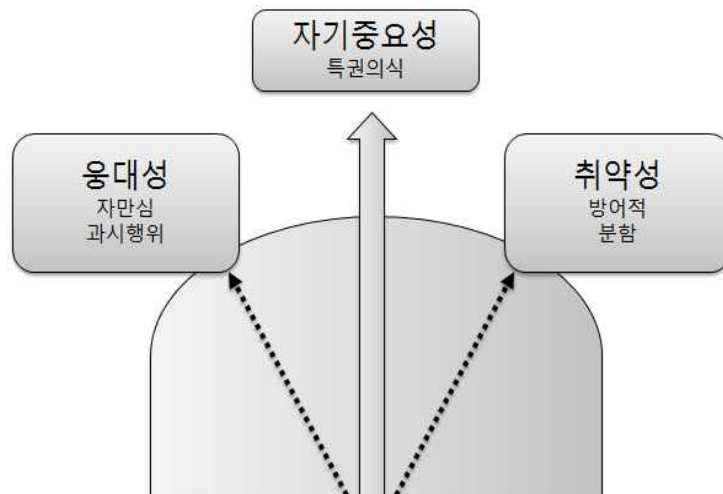
<그림 1>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Concept

이후에 나온 나르시시즘 모델은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Concept (NARC, Back et al., 2013)이며 그림 1과 같다. 본 모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성향은 자기 고양(자신의 웅대성을 유지하기 위한)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며, 적극적 자기표현과 적대적인 자기 방어로 나타난다. 전자는 나르시시즘의 특성 중 고유성에 대한 갈망으로 웅대성을 나타내며, 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절하 비난에 대한 공격

적 성향을 의미한다. NARC는 과거 나르시시즘의 웅대성 측면만을 살펴 보던 모델과 다르게 자기방어적 측면까지 고려하였기에 이전 모델보다 더욱 뛰어나다.

한편, NARC 모델은 과거 나르시시즘이 처음 나타났을 때 고려되었던 병리적 측면인 취약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해 이를 고려하며 웅대성과 취약성의 공통요인인 자기중심성을 포함한 Narcissism Spectrum Model(NSM, Krizan & Herlache, 2017)이 나오게 되었다.

NSM은 광범위한 성격, 사회 심리학적, 임상적 증거를 종합함으로써, 제안된 모델로써 임상적으로 탄생한 나르시시즘의 기원을 존중하고, 표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포용하고, 연속성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적 증거를 반영하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기존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졌다(Krizan & Herlache, 2017). NSM(그림 2)을 통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웅대성(접근적)과 취약성(회피적)의 정도가 다르다고 밝혔다. 즉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모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성격은 자기중요성, 특권의식, 오만을 핵심으로 나르시시스트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포괄하는 성격을 의미한다.



<그림 2> Narcissism Spectrum Model

NSM에 기초하여 현재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들의 하위요인에 대해(SGIGS, HNS, NPI, PNI, FFNI) 1요인(자기중요성), 2요인(웅대성과 취약성/자기중요성), 3요인(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에 대한 분산의 설명량은 1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49%) 모형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요인으로 나눈 요인분석은 1요인(29%), 2요인(28%), 3요인(13%)로 분산의 설명량이 나타났으며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Krizan & Herlache, 2017).

종합해보면, 기존의 측정도구들은 나르시시즘을 3요인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요인들로만 측정이 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체로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NSM에서 구분한 3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 3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 가능한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5)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의 관계

사회 심리학 그리고 성격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두 가지 구조는 바로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이다. 실제로 이 둘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구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이 많다. 따라서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에 대해 구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의 논문을 참고하여 리뷰를 진행하였다.

Freud(1953)는 먼저 나르시시즘이 자기존중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는 자기존중이 리비도(libido)의 만족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나르시시즘은 자기존중감과 구별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Raskin & Terry, 1988).

먼저 각각의 정의를 살펴보면, 나르시시즘은 자기중요성을 중심으로 웅대성과 취약성의 범주 안에 있는 성격 특성(Krizan & Herlache, 2017)으로,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Rosenberg, 1965). 나르시시스트들과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모두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점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까지 한다.

Campbell(2001)의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로 이들 둘 간의 상관관계는 ($r=.29$, $n=2,963$,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 수치를 보더라도 29%가 유사한 것이지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와 자기존중감 간에 극명하게 구분되는 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대인관계적 특성 부분이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Campbell, Rudich, Sedikides,

2002).

나르시시스트들과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 모두 긍정적 자기관(self-view)을 보이지만, 이들은 의미적 차원에서 구분되어진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들 자신을 매우 외향적이며 유능하고 주체적(작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한편,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하게 대하거나 도의적으로(공동체적 교감)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즉, 그들은 지극히 외향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공동체적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도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성실하고, 적응을 잘하는 도덕적인 성향을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르시시스트들과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사람들 보다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반면 대인관계나 도의적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에 이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사람들이 싫어 할 수 있다. 한편, 성과를 중시하는 팀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팀원으로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길지 모르나, 이들은 자신이 빛나기 위해 동료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Sedikides & Gregg, 2001).

정리해보면 나르시시스트들과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타인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길 원하나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고, 후자의 경우 모두에게 인기 있기를 위하여 자신도 높게 평가하고 주변사람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나르시시즘과 자기존중감 비교

구분	나르시시즘	자기존중감
정의	· 자신의 신체적, 외모적 모습 또는 능력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존경	·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들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함 · 긍정적 자기관(self-view)을 보임 · 모두에게 인기 있기를 원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권의식, 착취적 대인관계를 보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함 · 주체적(작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 ·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하게 대하거나 도의적으로(공동체적 교감) 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음 · 동료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도의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 친절하고, 사려 깊으며, 성실하고, 적응을 잘하는 도덕적인 성향을 보임 ·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림

2.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은 구성요인의 중요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여기서는 각 측정도구에 대해 알아보고 NSM의 요인구조에 기반을 두어 부족한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NPI는 정신 장애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III, APA, 1980)의 취약성을 포함하는 육체적 성격 장애 (Raskin & Hall, 1979)의 진단 기준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다(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NPI는 불안정한 요인 구조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축약형을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 권위, 웅대적 과시행위, 그리고 특권의식을 반영한 3 요인이 최적 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Ackerman et al., 2011). 하지만 특권의식 구성요인을 온전히 측정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Krizan & Herlache, 2017).

2)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NS)

HNS(Hendin & Cheek, 1997)는 Wink(1991)에 의해 밝혀진 취약하고 민감한 특징의 지표인 Murray(1938)의 초기 나르시시즘 척도에서 항목을 선택함으로써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자기에적 취약성에 대한 간단하고 합리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나타난 요인 분석은 척도가 충분히 신뢰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특권의식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하고 웅대성 측면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Pincus et al., 2009).

3) The Psychological Entitlement Scale(PES)

PES는 개인의 특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Campbell, Bonacci, Shelton, Exline, & Bushman, 2004). NSM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척도는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의 중심 인 자기중심성, 특권의식에 대해 타당하게 측정한다. 요인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척도의 신뢰도도 높게 나타났다(Campbell et al., 2004; Krizan & Johar, 2012). 그러나 척도는 특권의식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의 다른 기능적 측면인 웅대성(예 : 강압적) 또는 취약성(예 : 좌절감)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4)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PNI)

의사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나르시시즘 진단(예 : 성격 장애 설문지)과 같은 이전의 척도와 유사하게 웅대성과 취약성 측면을 반영하며, 7가지 영역에 걸쳐 나르시시즘의 부적절한 특징을 평가한다(Pincus et al., 2009). 이 도구는 나르시시즘에 대한 "병적인" 임상적으로 관련된 증상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일반 인구에서 사용하기 위한 척도로 개발되고 검증되어 높은 신뢰성을 보여준다(Pincus et al., 2009; Wright, Lukowitsky, Pincus, & Conroy, 2010). 그러나, 요인 분석 결과 웅대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들이 특권의식과 취약성 쪽에 더 요인부하량이 높고, 나르시시즘의 웅대성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M의 관점에서 보면 취약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자세히 잘 측정하나, 웅대성과 특권의식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The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Questionnaire (NARQ)

NARQ는 나르시시즘을 적극적 자기표현과 적대적인 자기 방어로 구분한다. 전자는 나르시시즘의 특성 중 고유성에 대한 갈망으로 웅대성을 나타내며, 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절하 비난에 대한 공격적 성향인 자기방어적 성향을 의미한다. 다른 나르시시즘 척도들에 비해 특권의식 측면이 타당하게 측정되며, 웅대성과 취약성 부분도 어느 정도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Krizan & Herlache, 2017). 하지만 NARC 모델은 과거 나르시시즘이 처음 나타났을 때 고려되었던 병리적 측면인 취약성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3. 나르시시즘관련 국외 연구동향

나르시시즘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과 관련하여 2019년에 진행된 논문들을 Google Scholar를 통해 조사해 보았다<표 3>.

그 결과 총 13개의 학술 논문이 발간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변인으로는 셀카 편집빈도, 자기고양, 자기홍보, 삶의 만족, 자기존중감, 상호의존적 자기관, 야망, 무례함, 의욕, 유연함, 창업 실패, 우울감, 비정직성, 성공을 위한 갈망, 개인 지각, 통찰력, 적대적, 공동체적, 창업의지, 외상 후 성장, 외상 후 증상, 과보호 등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의 웅대적 특성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며 삶에 대해 만족, 야망, 무례함, 의욕 쪽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취약적 특성의 경우 삶의 만족, 자기존중감 쪽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나르시시즘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나 대부분 나르시시즘과 관련변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나르시시즘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특성만을 다루었다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각기 다른 질문지를 사용하여 결과를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나르시시즘 관련 국외 최신 연구 동향(2019)

번호	변인(+,-)	나르시시즘 특성	측정도구	대상(성별)	인원
1	Selfie-editing frequency (+)	Grandios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대학생	589명 (여성 419명)
2	Self-enhancement (+) Self-promotion (+)	Grandiose	NPI	대학생	457명 (백인 84%, 여성 76%)
3	Life Satisfaction (+)	Grandiose	NPI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한 모집	253명 (남성 23.7%, 여성 76.3%; 학생 38.7%, 비학생 61.3%)
	Life Satisfaction (-)	Vulnerabl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Self-esteem (+)	Grandiose	NPI		
	Self-esteem (-)	Vulnerabl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Grandiose	NPI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Vulnerabl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4	ambitious	Grandiose	NPI	노르웨이군	1375명

	(+) disagreeable				
	(+) emotionally stable				
	(+) associative			장교 훈련생	(남성 1168명 대학 19~21세)
	(+) motivated				
	(+) flexible				
	(-) learning from entrepreneur ial failure	Grandiose	NPI	벤처 기업가	378명 (남성 73%, 학사 이상 학력 66%)
6	lower Depression (+)	Subclinical	Short Dark Triad questionnair e	SNS를 통한 온라인 모집	364명 (여성 56.9%)
7	Dishonesty (+)	Grandiose	NPI	대학생	140명 (남성 20명, 여성 101명, 19명 확인 불가)
8	Alcohol use and Consequences (+)	Grandiose	NPI	대학생	387명 (여성 69.25%, 백인 92.51%)
9	motivation to seek status (+)	Narcissism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Questionnair e	아마존 웹 서비스 플랫폼 직원	1219명 (남성 554명, 여성 664명)
	daily perceptions of status (+)	Admiration		대학생	760명 (남성 192명, 여성 568명)
	daily	Rivalry		대학생	356명

	perceptions of status (-)				(남성 124명, 여성 232명)
10	The Antagonistic facet to trust (-) the Communal facet to trust (+)	Grandiose	NARQ-S Communal Narcissism Inventory	구글 온라인 설문	727명 (남성 30.1%, 18세부터 35세)
11	Entrepreneurial Intention(+)	Narcissism	Dark Triad Dirty Dozen scale	MBA 대학생	334명 (남성 163명, 여성 171명)
12	Post traumatic growth (+) Post traumatic symptomatology (+)	Narcissism	Narcissistic Vulnerability Scale	테러 생존자, 교통사고자 , 산업재해자	152명 (남성 40%, 여성 60% 17세~68세)
13	Over parenting (+)	Narcissism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미시시피 대학 심리학 연구 참여자	301명 (남성 41명, 여성 258명, agender and transgender 2명)

참조: 1. Wang, D. (2019), 2. Nardis, Y., & Panek, E. (2019), 3. Rohmann, E., Hanke, S., & Bierhoff, H. (2019), 4. Martinsen, &, Arnulf, J., Furnham, A., & Lang-Ree, O. (2019), 5. Liu, Li, Hao, & Zhang. (2019), 6. Papageorgiou, Denovan, & Dagnall. (2019), 7. Schroder-Abe, M., Fatfouta, R., & Schroeder-Abe, M. (2019), 8. Kramer, M., Wilborn, D., Spencer, C., Stevenson, B., & Dvorak, R. (2019), 9. Zeigler-Hill, V., Vrabel, J., McCabe, G., Cosby, C., Traeder, C., Hobbs, K., & Southard, A. (2019), 10. Kwiatkowska, Jułkowski, Rogoza, Żemojtel-Piotrowska, & Fatfouta. (2019), 11. Wu, Wenqing, Wang, Hongxin, Zheng, Chundong, & Wu, Yenchun Jim. (2019), 12. Levi, & Bachar. (2019), 13. Winner, N., Nicholson, Bonnie C., Batastini, Ashley, Dahlen, Eric, & Mohn, Richard. (2019)

4.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1) 일반영역에서의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여러 연구들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들과 일반인들의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균보다 수행력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연구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일반인들의 지능, 그룹상호작용, 구두발표, 대인관계 민감성, 그리고 상급자의 업무 수행력평가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mes & Kammrath, 2004; Gabriel, Critelli, & Ee, 1994; John & Robins, 1994; Judge et al., 2006; Robins & John, 1997).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믿고 있으므로 부정적 수행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매우 공격적이며 직설적으로 표현한다(Bushman & Baumeister, 1988).

한편, Wallace와 Baumeister(2002)의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좋은 수행력을 보이고 특정 상황에서는 나쁜 수행력을 보인다고 나타났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나르시시스트들은 특정한 일을 할 때에 개인의 영예가 드높여 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강한 동기를 부여받아 우월감을 느끼며 수행력이 높아진다(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Morf, Weir, & Davidov, 2000; Sedikides & Gregg, 2001).

2) 스포츠 영역에서의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정신역학, 사회성격 심리학, 조직 심리학 그리고 경영학에서 나르시시즘과 수행력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행력을 중시하는 스포츠에서는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이 외면당해 왔다. 최근 들어, 선수들의 수행력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Geukes, Mesagno, Hanrahan, & Kellmann, 2012; Matosic et al., 2017; Roberts, Callow, Hardy, Woodman, & Thomas, 2010; Roberts, Woodman, & Sedikides, 2017).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즉, 개인의 영예가 높아 질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수행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떠한 프로세스로 인해 좋은 수행력이 나타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학자들에 의해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Wallace와 Baumeister(2002)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개인의 영예가 높아지는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 노력을 가하게 되고 영예와 별로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수행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Woodman과 그의 동료들은(2011) 체육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팀원들 간에 분리된 상태에서 10분간 팀 싸이클링 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측정하는 동안 심박수, 운동자각도 및 개인 싸이클링 기록이 저장된다고 하였으며, 대조군은 팀 싸이클링 기록만 저장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기록이 식별 가능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1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의 차이가 났으며, 육체적 노력(심박수와 운동자각도로 측정)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운동자각도와 심박수가 상호작용하였는지 각각 독단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다른 견해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똑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불안-수행관련 연구에서 불안이 낮은 수행자들이 노력을 조절하여 수행력을 높인다고 하였으나 불안이 높은 수행자들은 그러지 못하였다(Hardy & Hutchinson, 2007; Smith, Bellamy, Collins, & Newell, 2001). 또한

불안 이론가인 Eysenck(1982)에 따르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만 노력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의 낮은 불안(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또는 높은 자신감(Campbell et al., 2002)은 노력하면 수행력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실제 수행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2002년 올림픽 선수들을 대상으로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연습상황에서는 영예를 획득할 기회가 적기에 수행력뿐만 아니라 활력 또한 적다고 나타났으며(Gould, Greenleaf, Chung, & Guinan, 2002), 나르시시스트들은 정식 경쟁 상황일 때보다 수행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et al., 2013).

지금까지 나열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과 경쟁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나르시시스트들과 대인간 나타나는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수행력을 살펴보겠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연습상황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노력을 적게 하며 수행력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이에 연습상황에서 코치의 행동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동기 분위기 연구에서는 과제중심 분위기가 수행중심 분위기 보다 좋다고 알려져 있다(O' Rourke, Smith, Smoll, & Cumming, 2014).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성격은 무시한 것이며 특정 동기 분위기가 어떤 개인에게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연습상황에서 코치가 추구하는 동기분위기가 나르시시스트들의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으며, 경쟁상황에서 타인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영광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행중심 분위기가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더욱 노력을 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나타났다(Roberts, Woodman, Lofthouse, & Williams, 2015).

한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어떠한 동기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존경스럽게 봐주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

력한다는 주장이 있다(McCall, 1986).

추가적으로, 코치의 변혁적 리더십 행동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노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변혁적 리더십 행동은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면 수행자들의 동기가 높아져 수행력이 올라 간다고 알려져 있다. Arthur et al.,(2011)에 따르면, 팀을 중시하며 기대를 가지고 격려했을 때 나르시시스트들의 노력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선수들을 개개인으로 대했을 때는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그들의 노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들은 코치의 관심을 얻기 위한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며, 영예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수들을 각각에 따로 지도하였을 때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종합해보면,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은 그들의 수행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나르시시즘 척도들의 경우 대체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반인 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 또한 나르시시즘의 특성을 부분적으로만 측정하였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개념을 정립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선수 및 지도자와의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I.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문헌고찰 → 심층면담, 개방형설문 → 구성요인 선정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문헌고찰 단계에서 일반영역, 주로 군인, 외과의, 그리고 경영자 관련 연구들에서 나르시시즘과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스포츠 현장에 적용가능한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문헌고찰과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전문가 회의를 거친 후 범주화하여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절차에 맞게 실시하였다(승인번호 IRB No. 1901/003-004).

1. 연구참여자

1) 심층 면담 참여자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개인(수영, 테니스, 유도, 빙상, 골프, 태권도), 단체종목(축구, 배구, 핸드볼) 전·현직 지도자 및 선수들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통해 심층면담을 하였으며, 대상자의 종목특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추가적으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다고 판단되는 선수를 추천받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도자 2명, 일반 운동선수 4명,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선수 4명이 심층 면담 참여자로 선정되었으며, 참여자의 기본적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심층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유형	종목	소속	주요경력
남	39	지도자	축구	대학교	
남	38	지도자	빙상	국가대표	국가대표
남	30	선수	유도	실업	국가대표
여	26	선수	골프	프로	
여	23	선수	핸드볼	대학교	
여	32	선수	수영	실업	국가대표
남	27	선수	축구	프로	
남	25	선수	배구	실업	
남	22	선수	테니스	대학	
남	26	선수	태권도	실업	국가대표

2) 개방형 설문 참여자

문헌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해 다수의 인원을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정식 등록된 개인종목 및 단체종목 선수 72명(축구, 농구, 야구, 배구, 핸드볼, 하키, 수영,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유도, 골프)을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이후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개방형 설문 참여자의 배경 정보는 <표 5>와 같다.

표 5. 개방형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n=72)

분류	구분	인원 (명)	백분율 (%)
성별	남성	52	72.2
	여성	20	27.7
나이	20대 초반(20~23)	48	66.6
	20대 중반(24~26)	12	16.6
	20대 후반(27~29)	8	11.1
	30대 이상(30~39)	4	5.5
운동종목	축구	10	13.8
	농구	10	13.8
	야구	5	6.9
	배구	5	6.9
	핸드볼	5	6.9
	하키	5	6.9
	수영	6	8.3
	육상	6	8.3
	테니스	8	11.1
	배드민턴	2	2.7
	태권도	8	11.1
	유도	4	5.5
	골프	4	5.5
운동경력	5년 미만	7	9.7
	5년 이상 ~ 10년 미만	32	44.4
	10년 이상 ~ 15년 미만	26	36.1
	15년 이상 ~ 20년 미만	6	8.3
	20년 이상	1	1.3
입상경력	없음	5	6.9
	시대회	4	5.5
	도대회	5	6.9
	전국대회	47	65.2
	세계대회	11	15.2

2. 연구절차

1) 심층 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위한 준비과정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에 대한 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나르시시즘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전문가회의(스포츠심리학자 3명, 스포츠심리학 전공자 5명, 연구자)를 통하여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준비하였다.

2) 심층 면담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면담 장소 및 시간을 약속하여 직접 대면 하에 실시하였으며, 1회 약 30~50분 동안 1:1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인원 및 조건, 참여과정, 참여기간, 참여도중 중단가능 여부, 부작용 및 위험요소, 참여자의 이득 및 불이익, 비밀 보장과 관련하여 작성되어 있는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 및 내용 기록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휴대전화의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한 내용은 한글파일로 전사 하였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wise folder hid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일암호화기능을 사용하여 불특정 문자로 보관하였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나르시시즘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게 된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성인 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이 운동선수의 훈련, 시합 및 일반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표 4>.

3) 개방형 설문

문헌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스포츠심리학 전문가 및 전공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방형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개방형 설문은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상호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직접적으로 설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료수집의 접근성을 위해 G사의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추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온라인 설문지는 인터넷 상의 파일주소(URL: uniform resource locator)를 참여자의 e-mail 또는 핸드폰으로 발송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개방형 설문의 질문내용은 심층면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지 주요 질문 내용

분류	질문내용
종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특권의식(자기중심적 성향)을 보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과시적 행위를 하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인정욕구를 보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취약적인 모습을 보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방어적 모습을 보이나요?
훈련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지도자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시합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관중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지도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일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매체에서 자신을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주변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나요? -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선수에게 있어 나르시시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자료분석

문헌고찰, 심층 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층면담은 전사, 주제별 분류, 의미화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스마트폰의 음성메모를 통해 녹취한 심층 면담 내용을 전사하여 문서파일로 기록하였다. 전사는 최대한 면담자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모든 과정은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사가 끝난 이후 문자로 기록된 문서파일을 보며 주제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주제별로 분류된 것들을 연구주제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개념을 의미별로 분류하였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게 된 자료 또한 개방형 코딩을 통해 세부내용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개념들 중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주제별 분류, 의미화 순으로 심층면담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렇게 얻게 된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것들은 묶고 문헌고찰에서 알게 된 용어를 참고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에서 도출된 세부내용들 중 빈도가 높은 것은 추후 예비문항에 활용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 삼각검증, 동료 간 협의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연구자를 참여자와 분리시키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김영천, 2012).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심층 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을(Glesne, 1999) 실시하여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한 의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개념과 관련된 척도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과 박사 2인 박사수료 후 연구생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질적 분석과 해석에 대해 조언을 구하여 연구자의 독단적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분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Ⅱ.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한 예비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를 개발하였다.

1. 연구대상

일반적으로 실험연구에서는 표본수를 몇으로 하고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Olejnik & Algina, 2000). 본 연구는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보다는 측정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척도의 요인분석을 위해 약 400명 정도의 표본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맞춰(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372명을 표집 하였다. 그러나 설문이 완료된 이후 확인결과 응답이 누락된 것과 답변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 24부가 확인되어 이를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개인종목 146명, 단체종목 202명, 총 348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174명), 구성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 및 문항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7>과 같이 나타났으며, 성별, 나이, 운동종목, 운동경력, 입상경력에 대한 배경변인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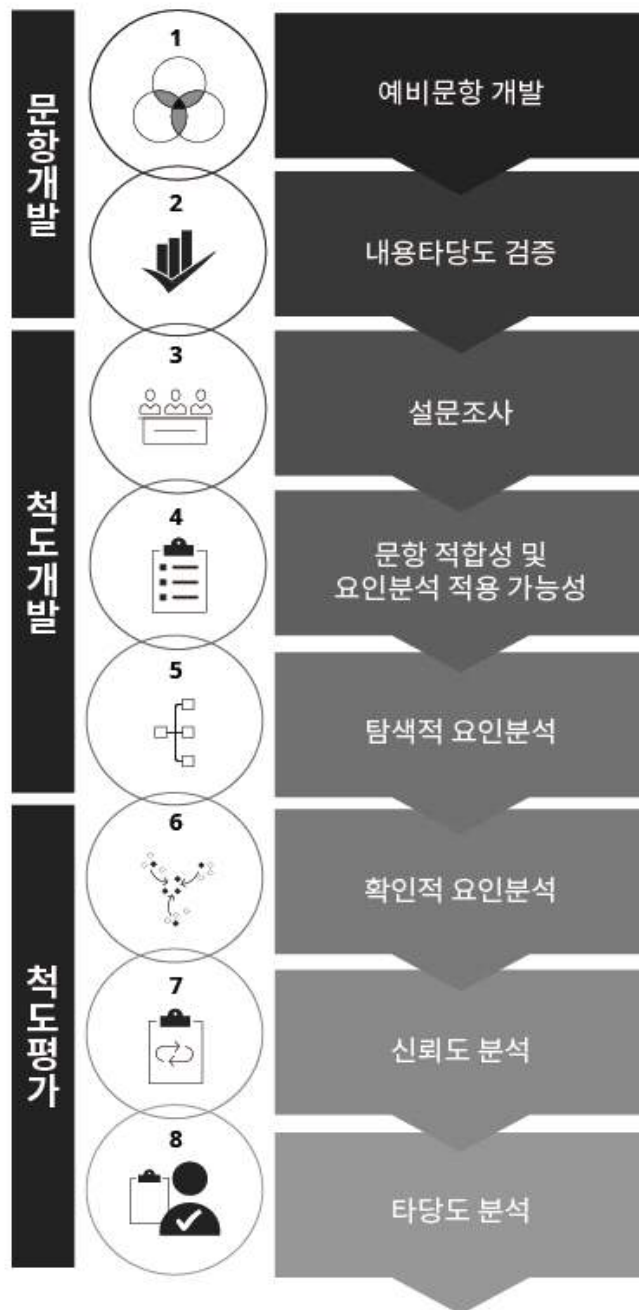
표 7. 예비 검사지 설문 참여자 배경 정보

(n=348)

분류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245	70.4
	여성	103	29.6
나이	20대 초반(20~23)	272	78.2
	20대 중반(24~26)	38	10.9
	20대 후반(27~29)	19	5.5
	30대 이상(30~39)	19	5.5
운동종목	축구	83	23.9
	농구	48	13.8
	야구	18	5.2
	배구	15	4.3
	하키	15	4.3
	핸드볼	30	8.6
	테니스	10	2.9
	배드민턴	2	.6
	수영	16	4.6
	육상	15	4.3
	태권도	39	11.2
	유도	17	4.9
	복싱	23	6.6
	역도	8	2.3
	골프	4	1.1
	검도	5	1.4
운동경력	5년 미만	26	7.5
	5년 이상 ~ 10년 미만	162	46.6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8	36.8
	15년 이상 ~ 20년 미만	25	7.2
	20년 이상	7	2.0
입상경력	없음	27	7.8
	시대회	8	2.3
	도대회	8	2.3
	전국대회	255	73.3
	세계대회	50	14.4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된 구성개념을 토대로 연구자가 초기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스포츠심리학자와 스포츠심리전공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다양한 운동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기 위해 선수촌, 대학, 실업팀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여건이 맞지 않는 곳은 목적적 표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방문조사의 경우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 및 자료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G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만든 뒤 목적적 표집에 의해 선택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문 URL을 발송하였으며, 설문에는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해 체크 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참여에 동의한 인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에서 코딩한 후 문항 적합성 검사를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한 뒤,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개념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공인타당도,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절차를 도식화한 것은 <그림 3>과 같으며 이는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Scales for Health,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A Primer” (Boateng et al., 2018)의 연구에서 측정도구 개발 시 지켜야 하는 절차를 참고한 것이다. 측정도구 개발 절차 중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심층면담과 개방형 인터뷰를 통해 요인을 확정지었으므로, 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인 탐색적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3> 측정도구 개발 절차

3. 측정도구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 (Athletes Narcissism Scale)

본 연구에서 개발된 4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척도는 자기중요성 4문항, 자기과시성 6문항, 자기방어성 4문항, 자기과민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내적합치도 지수 (Cronhach' s α)는 전체 .852, 자기중요성 .845, 자기과시성 .860, 자기방어성 .811, 자기과민성 .764로 나타났다.

2)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 (Narcissism Personality Inventory-16)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40문항으로 구성된 NPI 척도의 축약 버전인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NPI-16(Ames, Rose, & Anderson, 2006)을 사용하였다. 기존 NPI 질문지는 40문항의 방대한 양으로 구성요인이 제대로 묶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응답자의 피로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내적합치도 지수(Cronhach' s α)는 .910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24)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의 개별 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김용석(2010)이 개발한 SDS-24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는 총 24문항 2요인(자기기만, 인상관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내적합치도 지수(Cronhach' s α)는 전체 .827, 자기기만 .831, 인상관리 .749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1) 예비문항에 대한 문항적합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분석(문항반응 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과 신뢰도 분석을 위한 내적합치도(Cronbach' α) 분석,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운지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KMO 적합도 검증,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에 대한 요인구조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AMOS 21.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요인분석 이후 구인타당도가 검증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 α)분석을 실시하였다.

5)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를 활용하였다.

6)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의 공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 교차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연구 1>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선수 및 지도자와의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후 귀납적 분석을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한 구성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연구 2>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I.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탐색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들의 귀납적 범주화를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을 정립하였다. 지도자 2인, 운동선수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72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팀원 대화주도, 본인 위주의 훈련, 주변사람을 이용, 타인에게 뽐내기, 자신의 약점에 민감, 자기 합리화 등 31개의 세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후 범주화와 의미화의 과정을 통해 특권의식, 착취적 대인관계, 인정욕구, 과시적 행위 반응 민감성, 자기합리화 등 6개의 하위범주와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과민성, 자기방어성 총 4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다.

표 8. 심층면담 코딩 결과

세부내용(31)	하위범주(6)	상위범주(4)
허드렛일 안함 팀 규율 어김 팀원끼리의 대화 주도 하고 싶은 것만 훈련 개인 훈련프로그램 요구	특권의식	자기중요성
나의 목표를 위해 타인 이용 주변사람들이 나한테 맞추기 원함 팀원에게 심부름 지시 경기장에서 모두 나에게 맞추길 원함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따르게 함	착취적 대인관계	
인정받을 기회 추구 주목받길 원함 관중들의 시선 즐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 인터넷에서 다뤄지길 원함 모든 사람들의 관심대상이길 원함	인정욕구	자기과시성
연습상황 기술 뽐냄 일상생활 자기노출 외적으로 꾸미기 위해 노력 자신의 능력 뽐냄	과시적 행위	
타인의 지적에 민감 경기 중 실수 쉽게 좌절 약점 노출에 민감 운동능력 비난에 민감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	반응 민감성	자기과민성
운동 외에 못하는 것 안함 가능성 없는 시합 최선을 다하지 않음 지도자의 지적 귀담지 않음 자신의 실수 인정하지 않음 자신의 실수 타인에게 전가 좋은 경기 결과에 대해 핑계	방어적 자기 합리화	

1) 심층면담

(1) 자기중요성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은 자기중요성을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10명의 지도자 및 선수들 모두 특권 의식, 착취적 대인관계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여러 용어를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에 자기중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 나르시시즘이 높은 애들은요 지 멋대로 예요. 자기만 특별한 사람인 마냥 팀원들한테도 막대하고 운동 준비할 때는 어슬렁어슬렁 제일 늦게 나오고, 남들 다 운동 정리할 때 꼭 지 혼자 하고 싶은 연습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요. 공 모아주고 올려주는거 다 부탁하고 제가 부탁하면 자기는 잘 안 해줘요. 시합 때도 본인이 득점하고 싶어서 계속 자기 쪽으로 토스 해달라고 말하구요.

-선수 H-

고등학교때 저희 학교에서 잠시 훈련받던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국가대표 하고 있고 제 또래라서 저는 잘 아는 선수였죠. 연습할 때 보면 우리 코치가 얘기 해주는건 듣지도 않아요, 본인이 판단하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는걸 연습하러 하지, 코치의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코치들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연습해요.

-선수 I-

개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죠. 훈련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훈련만 열심히 하고, 체력 훈련 같은 거는 핑계 대면서 잘 안하려고 하죠. 팀원들을 대할 때도 보면 개가 하자는 대로 선수들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제 말 보다는 개 말을 더 잘 듣는 다니까요 자기에

게 유리하도록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지도자 B-

저랑 같은 코치에게 레슨 받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골프 레슨은 자기 박스에서 치고 있으면 코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봐주시거든요, 그런데 애는 자기 레슨 다 받고 코치님이 저한테 레슨 해줄 때 마다 꼭 옆에 와서 공을 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치님의 시선이 그 선수에게로 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아니라 그 선수에게 레슨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개는 항상 그래요.

-선수 D-

일단 나르시시즘이 높은 축구선수들은 연습 경기 같은 경우 설렁설렁 뛰는 경향이 있구요,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쉬러 들어가려는 다른 선수들을 불러 키퍼 세우고 혼자 프리킥 연습을 하기도 하구요. 후배들에게 심부름을 자주 시켜요. 시합 때는 보통 자기한테 패스 해달라고 자주 요구를 하고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경기가 끝나고 화를 내죠.

-선수 G-

솔직히 제가 좀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투기종목이다 보니까 파트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연습이 많은데, 제가 연습하고 싶은 기술들을 맘 놓고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메쳐지고 꺾이고 짓눌리고 해야 하는데 당하는건 누구나 좋아하지 않으니. 그래서 저는 선수들에게 저에게 연습이 되도록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잘 받아주진 않죠.

-선수 C-

아무래도 애는 일상생활에서 동료들끼리 있을 때 입김이 센 편이에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려고 하고, 다른 팀원들도 대

부분 다 맞춰주려고 해요, 아무래도 애가 우리 팀에서는 운동을 제일 잘 하다보니까. 그 라인에 들어가려고 개의 말을 거의 다 따르죠. 밥 먹는 메뉴나, 심지어 게임할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포지션 마음대로 고르고 하죠. 주변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 J-

나르시시즘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 자기중요성이 운동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났으며, 선수와 지도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자신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특권의식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었다. 자신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며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특성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나르시시즘 성격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며 운동선수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선수들도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다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며 사람들을 이용하는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에서 말하는 착취적 대인관계는 나르시시즘 성격의 병적인 특성으로 본인에 대한 타인의 숭배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며, 상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에서 말하는 착취적 대인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훈련에서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주변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 시합장에서 자신에게 모두가 맞춰주길 원하는 행위, 단체종목 선수의 경우 시합에서 자신의 개인적 성과를 위해 팀원들이 모두 받쳐줘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팀원들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팀원들과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하려는 성향을 보였다. 이처럼 자기 중요성은 일반인들과 운동선수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적 나르시시즘 특성과 같이 ‘자기중요성’이라 명명하였다.

(2) 자기과시성

자기중요성과 더불어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고찰을 통해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특성 중 많이 거론되는 부분은 바로 웅대성이다. 웅대성은 흔히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과시행위를 하거나 자신을 거대하게 바라보며 자기 환상에 젖어 있는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은 지도자 및 선수들과 심층면담에서 운동선수들의 웅대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다.

혼자 연습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니 파트너랑 같이 연습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서로 상대방에게 연습이 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맞춰주던지. 근데 애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더 운동 잘하고 우리랑 같이 할 클래스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파트너가 받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치고 일부로 더 그래요.

-선수 I-

이런 선수들은 관중이 많을 때나 큰 시합에서 좀 더 주목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랄까 관심 받을 기회에 목말라 있다가 할까. 눈빛부터 달라지고 중요하지 않은 대회나 관중이 적은 대회 때랑은 확연히 다르죠. 연습용 선수 시합용 선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연습 때는 잘하는데 대회 나가면 못하는 애들이 보통인데 애네 들은 아무래도 큰 대회에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지도자 A-

이 선수는 거의 평상시에 핸드폰을 달고 살아요, 운동하지 않을 때는 보통 핸드폰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 사진 자주 올리고, 친구들이랑 좋은데 놀러간 사진들 이런 거 많이 올려요, 전 다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애네들

부류는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그런데다 사진 업로드 엄청 하더라구요.

-선수 F-

한번은 프로님이랑 그 선수랑 같이 라운딩을 나갔는데, 제가 100미터 남은 거리에서 샷을 쳤는데 홀에 붙였어요. 그래서 프로님도 저에게 박수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선수가 저랑 같은 자리에 볼을 놓더니 채를 가져와서 치는 거예요. 또 프로님이 저보고 공 멀리 잘 보냈다면 그 선수는 더 멀리 보내려고 강하게 치고 그래요.

-선수 D-

외적인 꾸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외제차나 명품 옷 자신을 꾸미는데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클럽 같은 곳에 가서도 비싼 술 시키고 자기들 끼리 그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구요.

-선수 G-

심층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 나르시시즘 성격특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난 점을 뽐내고 싶어 하는 과시욕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운동능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운동능력 외에 외적인 치장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인 거대 자기환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대 자기 환상이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과장된 능력이 있다 믿으며 살아가는 특성으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타인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기에 자신에 대해 과하게 평가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어렸

을 때부터 선수생활을 해 오면서 수많은 시합을 경험하고 경기 결과를 받아들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거대자기 환상 특성이 운동선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나르시시즘의 웅대성 측면에서 거대자기 환상을 제외한 ‘자기과시성’이라는 요인명으로 명명하였다.

(3) 자기과민성

자기중요성, 웅대성과 더불어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성이 취약성이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만큼 자신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크게 좌절하게 되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이 나르시시즘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으로 불리며 심층 면담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경기 중 한번 말리게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고 상대선수를 무시했는데 상대가 잘해버리고 내가 잘 안 풀리면 시합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나요.

-선수 J-

본인보다 실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본인보다 경기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차갑게 대해요, 반대로 자기가 성적이 좋거나 잘하고 있을 때는 괜히 와서 살갑게 대하고 그렇죠, 경기결과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선수 F-

개는 자기 실력에 대해 남들이 조금만 뭐라 해도 엄청 짜증을 내요, 자기는 다른 선수들한테 못하느니 어찌느니 말만 잘하면서 우리가 뭐라 한마디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한번은 제가 오늘 너 왜 그러냐고 한마디 했더니 짜증내면서 욕까지 하더라구요 자존심만 강해 가지고.

-선수 D-

자신이 잘 못하는걸 연습 때 오히려 많이 연습하러 해요, 연습할때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못한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연습할 때 창피해서 안하거나 그런 선수는 없을 거예요 운동선수라면.

-선수 H-

위의 내용처럼 나르시시즘 성격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취약성 또한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나온 자기중요성과 웅대성 만큼 많은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나르시시즘이 강한 선수들의 경우 또한 일반적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에서 나타나는 취약성과 같이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성격특성과 다른 점은 선수들이 훈련할 때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습 즉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지금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 선수들의 경우 이러한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특성인 취약성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타인의 지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과민성’이라 명명하였다.

(4) 자기방어성

일반적 나르시시즘 특성에서 구분한 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 중 취약성의 특성에 가까운 특성인 자기방어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자기방어성이란 자신의 자아가 다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실수를 전가하며 핑계를 대는 것, 이기지 못할 시합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등을 의미한다. 다음은 선수와 지도자들과의 심층 면담에서 나타난 자기방어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연습 때건 시합 때건 본인이 못한 게 분명한데도 계속 핑계를 대고 남탓을 주로 하죠, 심판이 맘에 안 들었다. 관중이 시끄러웠다. 컨디션이 별로다. 징크스가 있었다. 핑계거리를 막 만들어내요.

-선수 E-

제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참 난감하죠. 제 말이 옳다고 인정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대할 때는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잘 띄워주면서 기분 맞춰주고 잘 달래야 그나마 말을 좀 듣죠.

-지도자 A-

이 선배는 시합에서 좀 해보다가 자기가 봤을 때 상대가 본인 보다 잘한다는 게 느껴져서 질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지면 창피해서 그런 건지.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았네, 오늘 날이 더워서 하기 싫었네, 자기합리화를 엄청 하죠. 속된 말로 혼자 정신승리 하고 있어요.

-선수 I-

시합을 하다보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 못할 때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자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 쏘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애는 꼭 다 지만의 이유가 있어요. 분명 공격상황에서 자기는 각도도 없는 사이드에서 수비수한테 쏘여 있고 나는 열려 있어서 나한테 패스 주면 골을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자기가 돌파하려다가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놓고 나중에 제가 그때 왜 패스 안했냐고 하면, 이래서 그래서 저래서 그랬다. 지 잘못이라고는 죽어도 말 안 해요.

-선수 G-

위의 심층면담 내용을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는 자기방어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상황, 시합상황에서 동료, 지도자 및 관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동능력을 평가받으며 살아간다. 누구나 선수 생활을 하다보면 경기상황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다. 만약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적귀인을 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과 자신감 하락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합리화를 통한 외적귀인을 한다면 심적으로 부담이 덜하며 운동선수 생활을 지속하는데 더욱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모든 잘못에 대해 외적귀인을 하게 되면 우수선수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실수가 발생하거나 좋지 않은 경기결과가 예상될 때 자기방어성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개념으로서 마지막으로 ‘자기방어성’이라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2) 개방형 설문

운동선수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탐색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및 심층면담 결과를 토대로 원자료를 수집하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심층면담과 유사하게 진행하였다. 수집된 원자료를 귀납적 범주화 하는 과정은 스포츠심리학 박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루어 졌다.

운동선수 6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325 개의 원자료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분류한 결과 자기중요성(85), 자기과시성(122), 자기방어성(61), 자기과민성(57) 총 네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특권의식(50), 착취적 대인관계(35), 인정욕구(12), 대회과시(82), 일상과시(28), 방어 행위(37), 회피행위(24), 반응민감(42), 결과민감(15)으로 소분류 되었다.

(1) 자기중요성

운동선수가 자신을 매우 중요시 생각하며, 자신은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권의식(50)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취적 대인관계(35)로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자기중요성으로 분류하였다.

표 9. 자기중요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훈련 때 준비 안함(1)			
훈련 때 정리 안함(2)			
운동능력이 특별함(2)			
팀 규율 어기기(3)	특권의식 (50)		
팀원 간 대화주도(2)			
본인이 하고 싶은 연습만 함(23)			
본인에 맞춘 프로그램 요구(11)			
본인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함(6)		자기중요성 (85)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325)
모두가 자신에게 맞추길 원함(17)			
팀원에게 심부름 시키기(1)			
스텝에게 개인적 요구하기(1)			
본인 목적 위해 타인 이용(3)	착취적 대인관계 (35)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강요(9)			
동료에게 지시하는 것 즐김(2)			
주변사람들이 따르길 원함(2)			

(2) 자기과시성

운동선수가 코치, 동료, 관중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12), 시합상황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어 뽐내고 싶어 하는 대회과시(82)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꾸미고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일상과시(28)로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자기과시성으로 분류하였다.

표 10. 자기과시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코치에게 인정받길 원함(4)	인정욕구 (12)	자기과시성 (12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325)		
관중에게 인정받길 원함(6)					
동료들에게 인정받길 원함(2)					
시합에서 돋보이려고 노력(6)	대회과시 (82)				
기회일 때 더욱 적극적(5)					
시합장에서 관심받고 싶음(31)					
관중들 시선 끌기(18)					
관중들에게 운동 능력 뽐내기(22)					
SNS에 자신 노출(1)	일상과시 (28)				
매스컴 타는걸 즐김(10)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원함(8)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실망(1)					
관심받고 싶어함(5)					
자신을 꾸밈(2)					
특별한 여가시간 보냄(1)					

(3) 자기과민성

운동선수가 자신의 운동능력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응민감(42)과 경기중 본인의 실수 또는 결과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민감(15)으로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자기과민성(57)으로 분류하였다.

표 11. 자기과민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본인 약점에 민감함(10)			
자기에 대한 비난 민감(17)	반응민감		
운동능력에 대한 비난 민감(12)	(42)	자기과민성	운동선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3)		(57)	나르시시즘
실수에 민감(5)	결과민감		(325)
결과에 민감(10)	(15)		

(4) 자기방어성

운동선수가 자신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으며, 본인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 행위(37)와 시합 중 실수 발생시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회피행위(24)로 소분류 하였으며 이를 자기방어성(61)으로 분류하였다.

표 12. 자기방어성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지도자 지적 수용 안함(10)	방어 행위		
실수 인정 안함(27)	(37)	자기방어성	운동선수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12)	회피 행위	(61)	나르시시즘
불리한 상황 관여 안함(2)	(24)		(325)

표 13.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에 대한 개방형 설문 귀납적 범주화

원자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훈련 때 준비 안함(1) 훈련 때 정리 안함(2) 운동능력이 특별함(2) 팀 규율 어기기(3) 팀원 간 대화주도(2)	특권의식 (50)		
본인이 하고 싶은 연습만 함(23) 본인에 맞춘 프로그램 요구(11) 본인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함(6)		자기중요성 (85)	
모두가 자신에게 맞추길 원함(17) 팀원에게 심부름 시키기(1) 스텝에게 개인적 요구하기(1) 본인 목적 위해 타인 이용(3) 자신에게 맞춰주기를 강요(9) 동료에게 지시하는 것 즐김(2) 주변사람들이 따르길 원함(2)	착취적 대인관계 (35)		
코치에게 인정받길 원함(4) 관중에게 인정받길 원함(6) 동료들에게 인정받길 원함(2)	인정욕구 (12)		
시합에서 돋보이려고 노력(6) 기회일 때 더욱 적극적(5) 시합장에서 관심받고 싶음(31) 관중들 시선 끌기(18) 관중들에게 운동 능력 뽐내기(22)	대회과시 (82)	자기과시성 (12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325)
SNS에 자신 노출(1) 매스컴 타는길 즐김(10)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원함(8)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 실망(1) 관심받고 싶어함(5) 자신을 꾸밈(2) 특별한 여가시간 보냄(1)	일상과시 (28)		
지도자 지적 수용 안함(10) 실수 인정 안함(27)	방어적 (37)	자기방어성 (61)	
실수를 타인에게 전가(12) 불리한 상황 관여 안함(2) 가능성 없으면 열심히 안함(10)	회피적 (24)		
본인 약점에 민감함(10) 자기에 대한 비난 민감(17) 운동능력에 대한 비난 민감(12)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3)	반응민감 (42)	자기과민성 (57)	
실수에 민감(5) 결과에 민감(10)	경기민감 (15)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일반적 나르시시즘 특성인 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이 운동선수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운동선수들과 지도자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특성, 즉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운동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인식하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개념을 탐색한 결과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과민성, 자기방어성 총 4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나르시시즘의 통합적 범주인 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Krizan & Herlache, 2017)과 유사하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개방형 설문, 심층면담을 통해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과민성, 자기방어성과 같이 총 4개 요인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개념을 정립하였다.

연구Ⅱ.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예비문항 개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심층면담 및 개방형 설문을 통해 코딩한 구성개념과 세부내용을 바탕으로 각 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추가적으로 나르시시즘 척도(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과민성 나르시시즘 척도(Hendin & Cheek, 1997)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문항 내용을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예비문항의 경우 성인 운동선수 3인의 검토과정을 통해 운동선수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예비 문항은 자기중요성 14문항, 자기과시성 16문항, 자기방어성 7문항, 자기과민성 4문항 등 총 4요인으로 구성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41개 예비문항이 개발되었으며, 문항의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2.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

개발된 41개의 예비문항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먼저, 문항 1의 경우 종목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제거하였다. 문항 21과 22, 문항 25와 26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항 22와 문항 25를 제거하였다. 또한 문항 33의 경우 개인종목 선수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며 문항 37의 경우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제거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결과 자기중요성 13문항, 자기과시성, 14문항, 자기방어성 4문항, 자기과민성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예비문항과 내용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은 <표 14>와 같다.

표 14.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예비문항

문항	요인
1. 나는 훈련이 끝난 후 뒷정리를 잘 안하려고 한다.	자기중요성
2.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한다.	
3. 나는 팀 규율을 조금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4. 나는 팀원들끼리의 대화를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5. 내가 연습하고 싶은 것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길 요구한다.	
6. 훈련 프로그램을 본인 수행향상에 맞게 집중해서 짜주길 바란다.	
7. 경기장에서 내 루틴에 맞춰 모두가 따라주길 요구한다.	
8. 나는 팀원에게 잔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편이다.	
9. 나는 스탭에게 개인적 요구를 자주 한다.	
10.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잘 이용할 수 있다.	
11. 나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운동 재능이 타고났다.	
12. 동료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즐긴다.	
13.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변사람들이 따르도록 할 수 있다.	
14.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위주로 한다.	

-
15. 나는 연습 상황에서도 내 기술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
 16. 내가 돋보일 수 있는 상황에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17. 나는 시합장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다.
 18. 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특별한 여가시간을 보낸다.
 19. 동료들이 항상 나에 대해 좋게 평가하기를 기대한다.
 20. 나는 좋은 플레이를 한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한다.
 21. 나는 시합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즐긴다.
 22. 나는 화려한 세레모니로 관중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 한다.
 23. 나의 운동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24. 관중이 많은 대회에서 나의 능력을 더욱 뽐내고 싶다.
 25. 여러 매체(기사, SNS)를 통해 나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려 한다.
 26. 여러 매체에서 나에 대해 다루는 것을 즐긴다.
 27. 일상생활에서 내가 운동선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면 좋겠다.
 28.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29.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다.
 30. 평상시 내 자신을 꾸미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편이다.
-

자기과시성

31. 지도자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32.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33. 시험 중 불리한 상황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자기방어성

34.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

35. 이기지 못할 시험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

36. 경기 중 실수 하게 되면 쉽게 무너진다.

37. 다른 사람들의 지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38.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자기과민성

39.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 하면 매우 화가 난다.

40. 내 운동능력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 가 없다.

41.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매우 신경 쓰인다.

3. 문항 적합성 및 요인분석 적용 가능성 점검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용타당도 검증으로 36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0명의 성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으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 적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 또한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4).

다음으로 예비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과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란, 설문에 응답하는 연구의 참여자가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데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성향(Rubin & Babbie, 2016)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바람직성은 연구를 하는데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을 불러 일으켜 측정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간의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변수로 두고 부분 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을 분석하는 방법,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조정점수(adjusted scores)를 사용,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수준을 절대값 평균 1.5 표준편차 이상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개별 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 별 상관계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할 때 기준치로 둔 .30을(Chang, Fresco, & Green, 2014; Lawrence et al., 2004) 넘지 않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문항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이 요인구조를 설명하는지에 대한 점검인 KMO(Kaiser-Meyer-Olkin)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0으로 놓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지 알아보아 대립가설 채택으로 단위행렬이 아님을 검증하는 Bartlett 단위행렬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 값은 .80보다 높은 .873으로 나타나 1에 가까우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chi^2 = 5929.399$ (df=630, $p < .001$)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표 15. 각 문항별 기술통계 및 적합성

(n=348)

문항 번호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문항-총점 상관계수	문항제거시 신뢰도	사회적바람 직성-상관
1	2.4943	1.06149	.422	-.436	.545**	.914	-.117*
2	2.2011	1.04360	.737	-.042	.455**	.916	-.064
3	3.0000	1.04647	-.046	-.542	.474**	.915	.103
4	2.8879	1.10882	.159	-.674	.579**	.914	-.124*
5	2.9080	1.16265	-.063	-.941	.624**	.913	-.101
6	2.3534	1.05131	.586	-.247	.628**	.913	-.062
7	1.9799	1.03937	1.094	.773	.496**	.915	-.126*
8	1.8822	.89856	1.097	1.215	.588**	.914	-.064
9	2.6408	.99001	.160	-.313	.560**	.914	.005
10	2.6293	1.07524	.249	-.486	.651**	.913	.118*
11	3.0833	.91195	-.212	.168	.535**	.915	.232**
12	3.0575	.92180	-.270	-.269	.513**	.915	.267**
13	2.4511	.89856	.231	-.390	.493**	.915	-.065
14	3.2184	1.02617	-.255	-.552	.565**	.914	.208**
15	3.1897	1.02347	-.095	-.622	.527**	.915	.161**
16	2.9483	1.17254	.198	-.791	.622**	.913	.107*
17	2.8075	.98417	.321	-.266	.372**	.917	.173**
18	3.3477	.99121	-.170	-.638	.446**	.916	.235**
19	2.9310	1.11364	-.027	-.837	.642**	.913	.075
20	2.7902	1.16343	.239	-.816	.608**	.913	.122*
21	3.1466	1.07302	-.211	-.478	.570**	.914	.166**
22	3.1466	1.22595	-.159	-.870	.507**	.915	.110*
23	2.6437	1.09731	.229	-.529	.656**	.913	.103
24	2.6839	1.04816	.011	-.671	.497**	.915	.138*
25	2.1379	1.01485	.802	.113	.599**	.914	-.00
26	2.3132	1.11430	.652	-.337	.672**	.913	.115*
27	3.1839	1.07396	-.189	-.553	.442**	.916	.158**
28	2.2040	.97300	.639	.032	.499**	.915	-.169**
29	1.9569	.88593	.985	1.080	.424**	.916	-.199**
30	1.9425	.84344	.805	.690	.495**	.915	-.132*
31	1.8937	1.00010	1.119	.736	.366**	.917	-.186**
32	2.8362	1.18548	.185	-.895	.163**	.920	-.183**
33	2.9310	1.11622	-.138	-.814	.371**	.917	-.126*
34	3.1609	1.17489	-.166	-.895	.315**	.918	-.082
35	2.9195	1.10507	.070	-.808	.392**	.917	.034
36	2.2443	.93328	.565	-.109	.390**	.916	-.035

전체 Cronbach' s α = .917

* $p < .05$ ** $p < .01$

4. 확인적 요인분석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분할법(sample-split approach)으로 전체 자료의 절반을(n=174)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정립한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방어성, 자기과민성 총 4개의 하위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4요인 모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4요인 36개 문항에 대해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74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최초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6>, 절대적합지수인 $\chi^2(1520.986, p<.001)$ 의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CFI(.684), TLI(.661) 값 모두 .90 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RMSEA는 .096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는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각 문항별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자기중요성 6문항, 자기과시성 6문항, 자기방어성 1문항, 자기과민성 1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나 내용 검토 후 제거하였다.

표 16.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174)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1520.986	588	2.587	<.001	.684	.661	.096

이후 22문항에 대해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중요성 3문항, 자기과시성 2문항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60미만으로 나타나 내용 검토 후 제거하였으며<표 17>, 모형 적합도 또한 수용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174)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544.195	203	2.681	<.001	.812	.786	.099

이에 최종적으로 17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대 적합지수인 χ^2 (216.830, $p<.001$)의 값은 유의하나, χ^2/df 의 값을 확인한 결과 2.614로 나타나 기준치인 3 이하인 것으로 계산되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CFI(.918), TLI(.902) 값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RMSEA는 .073으로 .08 이하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회귀계수 또한 모든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자기중요성 4문항, 자기과시성 6문항, 자기방어성 4문항, 자기과민성 3문항 등 4개 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채택하였다<표 18>. 모형분석에 대한 적합도 기준은 배병렬(2014)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다<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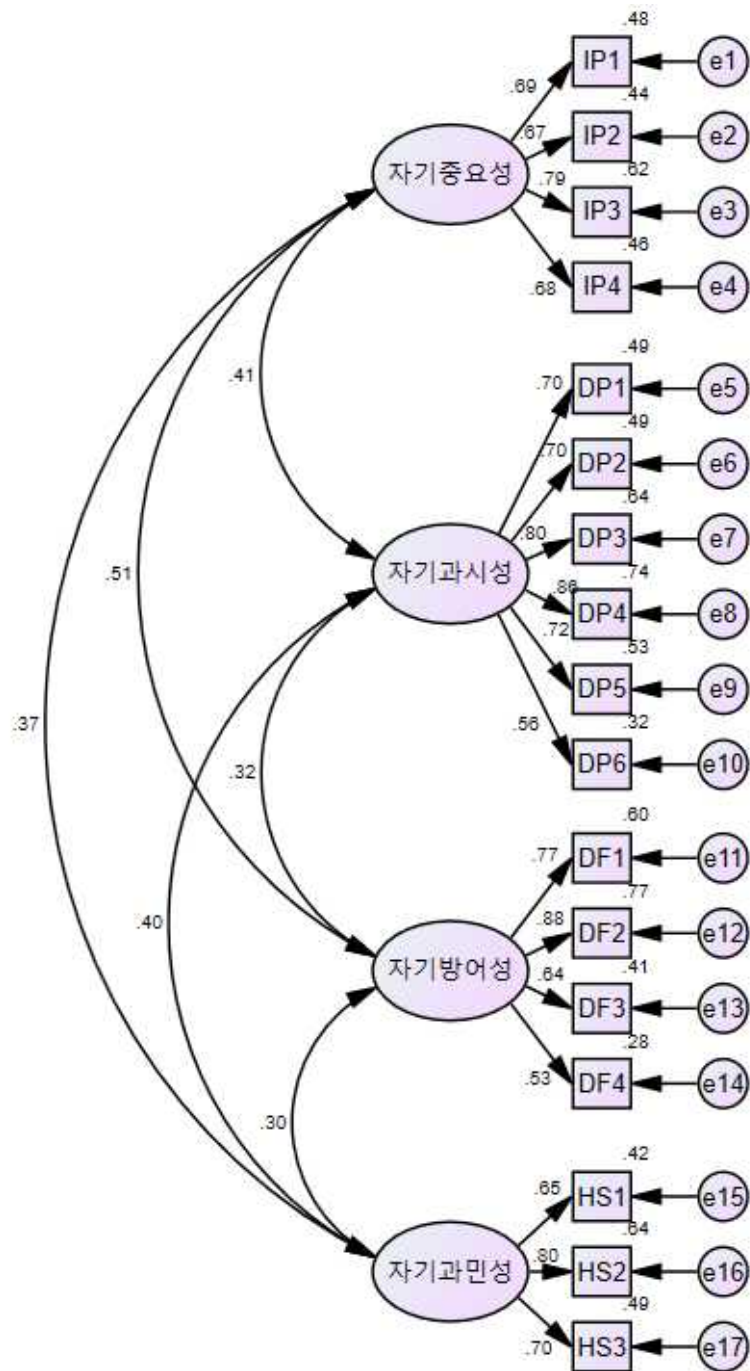
표 18.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174)

χ^2	df	χ^2/df	p	CFI	TLI	RMSEA
216.830	113	1.679	<.001	.918	.902	.073

표 19. 모형분석의 적합도 기준

지수	기준
χ^2	p>.05: 적합
χ^2/df	3 이하 : 적합
CFI	.90 이상: 적합
TLI	.90 이상: 적합
RMSEA	.08 이하: 적합



<그림 4> 확인적 요인분석

5.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를 4요인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378개의 자료를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 17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 α 값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52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 되었으며, 자기중요성 .845, 자기과시성 .860 자기방어성 .811, 자기과민성 .764으로 나타나 하위요인별 신뢰도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결과가 .04 보다 낮은 값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20>.

표 20. 최종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n=348)

요인	문항	문항-총점 상관계수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전체문항 내적합치도
자기중요성	자기중요성1	.580	.845**	
	자기중요성2	.608		
	자기중요성3	.634		
	자기중요성4	.625		
자기과시성	자기과시성1	.607	.860**	.852
	자기과시성2	.606		
	자기과시성3	.618		
	자기과시성4	.586		
	자기과시성5	.660		
	자기과시성6	.511		
자기방어성	자기방어성1	.529	.811**	
	자기방어성2	.449		
	자기방어성3	.474		
	자기방어성4	.403		
자기과민성	자기과민성1	.441	.764**	
	자기과민성2	.425		
	자기과민성3	.482		

* $p < .05$ ** $p < .01$

6. 개념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실시하였다.

1) 집중타당도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에 대한 집중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 값과 개념신뢰도 값을 Hair, Anderson, Babin & Black(2010)의 공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774~.862로 나타났으며 AVE값은 .515~.580으로 나타나 각각 기준치인 개념신뢰도 $\geq .70$, AVE $\geq .50$ (Hu & Bentler, 1999)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표 2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의 집중타당도 결과

(n=348)

요인	경로	B	β	S.E.	C.R. ¹	p	AVE	C.R. ²
자기중요성	→IP1	1	0.763			<.001		
	→IP2	1.008	0.737	.076	13.19	<.001	.580	.846
	→IP3	1.18	0.822	.081	14.557	<.001		
	→IP4	0.934	0.72	.073	12.883	<.001		
자기과시성	→DP1	1	0.675			<.001		
	→DP2	1.056	0.719	.090	11.788	<.001		
	→DP3	1.115	0.822	.085	13.161	<.001	.515	.862
	→DP4	1.28	0.826	.097	13.21	<.001		
	→DP5	0.976	0.704	.084	11.58	<.001		
	→DP6	0.682	0.515	.078	8.721	<.001		
자기방어성	→DF1	1	0.779			<.001		
	→DF2	0.899	0.768	.070	12.901	<.001	.521	.812
	→DF3	0.751	0.675	.065	11.577	<.001		
	→DF4	0.804	0.658	.071	11.298	<.001		
자기과민성	→HS1	1	0.609			<.001		
	→HS2	1.457	0.843	.151	9.674	<.001	.538	.774
	→HS3	1.184	0.729	.120	9.856	<.001		

2)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공한 값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AVE값보다 낮은지를 확인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정계수를 구한 뒤 AVE값과 비교한 결과 각 개념들의 결정계수는 AVE지수들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22>.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표 22.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결정계수 및 AVE 값

(n=348)

상관계수(ϕ)					AVE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방어성	자기과민성	
자기중요성	1				.580
자기과시성	0.409 (.167)	1			.515
자기방어성	0.439 (.192)	0.187 (.034)	1		.521
자기과민성	0.282 (.079)	0.249 (.062)	0.206 (.042)	1	.538

7.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는 준거관련 타당화(criterion related validity) 방법 중 하나이며, 타당도가 검증된 기존 척도를 가지고 새로 개발된 척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부로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웅대성 나르시시즘 성격을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PI-16)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모든 하위요인은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단일요인)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표 23>.

표 23. 운동선수 나르시시즘과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 간의 상관관계수
(n=348)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방어성	자기과민성
나르시시즘 성격	.372**	.679**	.245**	.126**

* $p<.05$ ** $p<.01$

8. 교차 타당도 검증

교차타당도(cross validity)는 모델이 다른 표본에서 재현(replicate)될 수 있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교차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표본분할법(sample-split approach)과 재표집법(resampling approach)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추정표본(calibration sample), 다른 하나는 검증표본(validation sample)으로 사용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검사를 타당화 하였으며, 추정표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한 174명의 자료, 검증표본은 이를 제외한 17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두 표본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chi^2(406.507, p<.001)$ 의 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나, CFI(.925), TLI(.910) 값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48로 .08이하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각 잠재변인에 나타나는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와 기저모형(형태 동일성모형)과의 $\Delta\chi^2$ 를 확인한 결과 ($\Delta\chi^2=8.930, p=.778$) 두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모형의 적합도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이후 측정동일성 모델에서 절편(intercept)이 동일하도록 제약한 절편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Delta\chi^2$ 또한 ($\Delta\chi^2=8.937, p=.538$) 차이가 나지 않아 절편동일성 또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요인부하량과 잠재변수간에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요인분산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Delta\chi^2$ 를 확인한 결과($\Delta\chi^2=16.159, p=.513$)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CFI(.928), TLI(.926), RMSEA(.044)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산동일성이 검증되었다<표 24>.

표 24. 측정도구의 교차 타당성 검증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형태 동일성	406.507	226			.925	.910	.048
측정 동일성	415.437	239	8.930	.778	.927	.917	.046
절편 동일성	424.375	249	8.937	.538	.928	.921	.045
요인분산 동일성	440.534	266	16.159	.513	.928	.926	.044

9.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이 배경변인(성별, 종목유형)에 따라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측정되어 지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남성, 여성), 종목유형(단체종목, 개인종목)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을 살펴보았다. 성별과 종목유형으로 구분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의 경우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시행하였으며, 종목유형을 구분한 것은 심층면담을 통해 개인종목 선수와 단체종목 선수 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과 연구자의 판단으로 정하였다.

집단별 구인 동등성 검증을 위해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성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먼저 성별(남성, 여성)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352.654$, $df=226$, $p<.001$ 로 나타나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χ^2 의 경우 표본에 민감하므로 $\chi^2/df(1.56)$ 값과 CFI(.925), TLI(.910), RMSEA(.045) 값을 참고하여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요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363.361$, $df=239$, $p<.001$, $\chi^2/df(1.52)$, CFI(.927), TLI(.917), RMSEA(.044)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는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 값은 10.707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635($p>0.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은 성별 간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표 25>.

표 25.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집단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성별	형태 동일성	352.654	226			.925	.910	.045
	측정동일성	363.361	239	10.707	.635	.927	.917	.044

2) 종목유형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종목유형(단체종목, 개인종목)에 따른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477.27$, $df=226$, $p<.001$ 로 나타나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chi^2/df(2.112)$ 값과 CFI(.898), TLI(.877), RMSEA(.057) 값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492.483$, $df=239$, $p<.001$, $\chi^2/df(2.061)$, CFI(.897), TLI(.882), RMSEA(.055)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 값은 15.214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294($p>0.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형은 종목유형 간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었다<표 26>.

표 26. 종목유형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집단	모형	χ^2	df	$\Delta\chi^2$	p	CFI	TLI	RMSEA
종목 유형	형태 동일성	477.27	226			.898	.877	.057
	측정동일성	492.483	239	15.214	.294	.897	.882	.055

V. 논의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 개념 정립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 개념 정립을 위해, 문헌 탐색,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전사, 주제별 분류, 의미화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 개방형 코딩을 통해 세부내용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개념들 중 공통적인 의미를 갖는 것을 주제별 분류, 의미화 순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심층면담 코딩결과를 살펴보면, 31개의 세부 개념과 6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이를 다시 범주화하여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과민성, 자기방어성 등 4개 하위 요인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325개의 원자료를 도출하였으며, 9가지로 소분류 되었으며, 심층 면담과 마찬가지로 최종 4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어 최종적으로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과민성, 자기방어성 등 4개 하위요인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 개념을 정립하였다.

1) 기존 나르시시즘의 구성개념 확인 및 보완

본 연구에서는 오랜 시간 연구되어 왔으나 학자들마다 그 의미에 대해 견해를 다르게 보이고 있는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알게된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에 대하여 지도자 2인과 운동선수 8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인 자기중심적, 허영심, 공감 부족(Jones, 1913; Waelder, 1925)이 있는지, 야망, 공격성, 리더쉽, 수치심, 분함, 관심을

구하는 특성이(Alexander, 1938; Freud, 1955; Jones, 1913; Murray, 1938; Nemiah, 1961; A. Reich, 1960; W. Reich, 1949)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보다는, 나르시시즘의 주요 특성을 포괄적인 범주로 다루고 있는 자기중요성, 웅대성, 취약성이 운동선수의 훈련, 시합 및 일반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부터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나르시시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인 자기중요성(Krizan & Herlache, 2017)을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을 다른 선수들과 달리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며 대접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성격특성 중 특권의식과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특권의식의 경우 자기중요성의 주요한 특성으로 자신을 매우 높게 평가하며, 타인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매우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나르시시즘의 주요한 특성이기에(Campbell et al., 2004) 일반사람과 운동선수에게서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기중요성에서 특권의식과 더불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착취적 대인관계 또한 운동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에서 말하는 착취적 대인관계는 나르시시즘 성격의 병적인 특성으로 본인에 대한 타인의 숭배를 통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며, 상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Campbell, Brunell, & Finkel, 2006).

하지만 운동선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착취적 대인관계 특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타인의 숭배나,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보다는 단순히 훈련에서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해 팀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 시합장에서 자신에게 모두가 맞춰주길 원하는 행위와 같이 자기 중요성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 정도에서만 착취적 대인관계가 나타났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훈련상황에서는 자신의 운동능

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시합상황에서는 최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여 목표하는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주변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권력을 부리며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자기중요성을 기반으로 단순히 자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대인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 나르시시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요성이 나르시시즘의 중심으로 보이며, 그중 특권의식과 착취적 대인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권의식의 경우 일반 나르시시스트들과 유사하나 착취적 대인관계의 경우 운동선수의 특성에 맞게 오로지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서만 나타나 일반적 나르시시즘 특성의 자기중요성과는 착취적 대인관계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 중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특성인 웅대적 특성이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웅대성은 흔히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과시행위를 하거나 자신을 거대하게 바라보며 자기 환상에 젖어 있는 특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orf & Rhodewalt, 2001).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 나르시시즘 성격특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난 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과시욕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능력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가치는 시합의 결과를 통해 대부분 결정지어 지며, 중요한 경기에서의 좋은 결과일수록 그 선수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 받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시합장에서 자신의 최고 운동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일반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 모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기과시 측면에

서는 일반 운동선수와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이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의 경우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동능력을 노출시키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나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본인들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층면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평상시 연습 상황, 일반 시합상황, 중요한 시합 상황에 따라 선수가 보이는 노력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개인의 영예가 높아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만족을 위해 노력을 가하게 되고 영예와 별로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노력을 덜 하기 때문에 수행력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 하는 Wallace와 Baumeister(2002)의 주장과 나르시시스트들은 연습 상황 때 보다 정식 경쟁 상황에서 수행력이 더 높다는(Gould, Greenleaf, Chung, & Guinan, 2002; Roberts et al., 2013) 선행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추가적으로 코치가 수행중심 분위기를 만들어 경쟁상황에서 타인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영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이 더욱 노력을 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Roberts, Woodman, Lofthouse, & Williams, 2015)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준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도 나르시시즘이 높은 경우 자신의 영예를 높일 수 있는 환경적 맥락에 따라 선수의 노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연습상황과 일반시합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여 수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수행중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운동선수들에게서 나타난 나르시시즘의 웅대적 특성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인 거대 자기환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대 자기 환상이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과장된 능력이 있다 믿으며 살아가는 특성인데(Ames,

Rose, & Anderson, 2006) 반해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선수생활을 해 오면서 수많은 시합을 경험하고 경기 결과를 받아들이며 코치와 동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과하게 평가하는 거대자기 환상 특성은 운동선수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웅대적 특성에서 거대 자기 환상을 뺀 자기과시성이라는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 중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르시시즘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취약적 특성이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과시성을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노출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즉, 중요한 자리에서 우월함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자신이 못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크게 좌절하게 되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르시시즘의 취약적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성격특성과 다른 점은 선수들이 훈련할 때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습 즉,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훈련할 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지금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 선수들의 경우 이러한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나르시시즘 특성인 취약성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을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과민성’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네 번째 구성 개념은 자기방어성으로 나타났다. 자기방어성이란 자신의 자아가 다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실수를 전가하며 핑계를 대는 것, 이기지 못할 시합에 최선을 다하지 않

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패귀인과도 연관이 있다. 귀인이란, 어떤 행동을 보고나서 많은 가능한 행위원인들 가운데 어느 원인을 그 행동에 귀속시켜야 할지를 추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교육학용어사전, 1995).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다수의 경쟁상황을 통해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며, 연습상황, 시합상황에서 동료, 지도자 및 관중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동능력을 평가받으며 살아간다. Weiner(1986)가 제시한 귀인 소재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를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적이며 안정성인 측면으로 놓게 된다면, 정신적 충격과 자신감 하락 등 여러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합리화를 통한 외적귀인 또는 내적이며 불안정적인 요소로 귀인 한다면 심적으로 부담이 덜하며 운동선수 생활을 지속하는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모든 실패에 대해 외적귀인을 하게 되면 우수선수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실수가 발생하거나 좋지 않은 경기결과가 예상될 때 일반 선수들과는 다르게 더욱 자기방어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 귀인을 내부요인(자신)으로 귀속시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외부요인(환경)으로 귀속시켜 자아존중감의 손상을 막으려 하는 성향을 보이는(황진, 김성옥 2007; Sherman, Kim, 2005)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나르시시즘이 높은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자기방어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를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구성 개념으로 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네 번째 구성 개념을 자기방어성으로 명명하였다.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1)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개발

선행연구, 심층면담과 설문자료의 개방형 코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립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과 세부 내용 및 원자료를 바탕으로 각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최초 개발된 예비문항은 자기중요성 14문항, 자기과시성 16문항, 자기방어성 7문항, 자기과민성 4문항 등 총 4요인으로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종목특성에 영향을 받는 문항과 중복된 문항을 제거 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증 결과, 자기중요성 13문항, 자기과시성, 14문항, 자기방어성 4문항, 자기과민성 5문항으로 총 4요인 36문항으로 정선되었다.

2)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타당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해 4요인 36문항을 예비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10명의 성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결과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문항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 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으며, 첨도의 절대값 또한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을 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배병렬, 2014).

다음으로 예비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과 각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이란, 설문에 응답하는 연구의 참여자가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고 싶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성향(Rubin & Babbie, 2016)을 의미하며,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을 위한 문항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불러 일으켜 측정 오류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 개별문항에 대해 사회적 바람직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 별 상관계수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척도를 개발할 때 기준으로 둔 .30을(Chang, Fresco, & Green, 2014; Lawrence et al., 2004) 넘지 않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문항인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 단위행렬 검정 결과값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요인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심층면담과 개방형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 요인을 확정지었으므로, 요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인 이론적 확신 없이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탐색적 요인분석을(박일혁, 엄한주, 이기봉, 2014) 실시하지 않았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자료에 기초한 분석법으로 우연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따라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본분할법(sample-split approach)으로 전체 자료의 절반을($n=174$) 무작위로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 심층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정립한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방어성, 자기과민성 총 4개의 하위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4요인 모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다.

4요인 36개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두 번에 걸쳐 표준화 회귀계수가 .60 미만으로 나타난 19문항을 제거한 뒤 최종 4요인 17문항에 대해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RMSEA, CFI, TLI 와 같은 상대적합지수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배

병렬, 2014). 최종적으로 자기중요성 4문항, 자기과시성 6문항, 자기방어성 4문항, 자기과민성 3문항 등 총 4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후 전체 378개의 자료에 대해 최종 17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하위요인별 신뢰도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총점 간 상관의 경우 일반적 기준치인 .4를 모두 넘는 것으로 나타나 문항의 변별력 또한 확인되었다.

구인타당도가 검증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모든 요인의 분산추출지수(AVE)값 또한 .5 이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모든 요인의 C.R. 값이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충족하여 개념신뢰도 또한 확보되었다. 이를 통해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개념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판별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하위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한 값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AVE값보다 낮은지를 확인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각 개념들의 결정계수는 AVE지수들 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각 하위 요인이 독립적으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하위 요인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가장 중심적 특성인 자기중요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하위요인들간 상관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가 나르시시즘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각 요인을 잘 설명하는 측정도구임을 알 수 있다.

준거관련 타당화 방법 중 하나인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모든 하위요인은 나르시시

즘 성격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편, 자기과민성의 경우 .126($p < .001$)으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과시성은 .679($p < .001$)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가 웅대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웅대적 특성을 띄는 자기과시성과 매우 높은 상관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취약적 특성부분인 자기과민성과 웅대적 특성을 측정한 나르시시즘 성격척도와 낮은 상관이 나타난 것 또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가 타당하게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동시에 일반적 나르시시즘 성격특성과는 구분되는 운동선수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모델이 다른 표본에서 재현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자료를 추정표본과 검증표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표본분할법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와 나머지 자료로 구분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을 통해 형태 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요인분산동일성이 모두 검증되어 교차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배경변인(성별, 종목유형)에 따라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측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단 간 구인 동등성 검증을 다집단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종목유형 모두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집단 간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집단 차이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최근 성격 연구는 수행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스포츠 심리학에서 외면당해 왔다(Roberts & Woodman, 2015; Vealey, 2002). 그러나 최근 들어 성격과 수행력을 연결 짓는 연구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운동선수, 군인, 외과의사, 그리고 회사 경영자와 같은 직업군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에 이들의 수행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격 관련 연구들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연구해야 할 중요한 성격 특성이며(Roberts & Woodman, & Sedikides, 2017), 문헌 고찰 및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나르시시즘 성격특성은 그들의 수행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 두드러지는 성격 특성인 나르시시즘에 대해 최근 들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 나르시시즘 연구의 한계점인, 나르시시즘의 특정한 부분만을 측정하여 연구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된 나르시시즘 척도들은 모두 일반인 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나르시시즘 스펙트럼 모델(Krizan & Herlache, 2017)을 참고로 나르시시즘의 통합적 관점에서 한국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개념을 정립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문헌고찰,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을 통해 자기중요성, 자기과시성, 자기방어성, 자기취약성 등 총 4개 요인의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이 검증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통합적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

구를 개발하였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나르시시즘을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최초로 개발됨으로 인해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선수들의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 파악을 통해 지도자들에게는 선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자들에게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과 관련 변인들 간 후속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후속 연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응답자들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자료수집시 웅대성을 측정하는 나르시시즘 성격척도(NPI-16)만이 수집되었으며, 취약성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포함시키지 못해, 공인타당도를 취약성 부분 까지 검증하지 못한 것이 한계이며 후속연구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NPI 척도 즉 나르시시즘의 웅대적 특성만을 고려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므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으로 정립된 자기방어성, 자기과민성과 같은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들과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제한점이 있다.

셋째, 추후 개인 종목 및 단체 종목 간의 비교를 위하여 종목특성에 무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집단 간 동등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종목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동등한 질문지의 활용을 추천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부 종목의 특수성 까지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기에 특정 종목의 선수들의 나르시시즘 파악을 위해서는 요인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문항을 구체화하여 수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성별 관련하여 나르시시즘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Grijalva et al., 2015)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의 자료를 활용하여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운동종목유형에서 운동선수 나르시시즘의 정도가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성 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이기에 이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추후 군인, 경영자 연구들에서 다루는 나르시시스트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및 수행력 등의 연구처럼, 나르시시스트 코치와 일반선수 및 나르시시스트 선수와의 관계 등의 분석을 위해 운동코치 나르시시즘 측정도구 또한 개발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1**.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석. (2010).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개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3), 1-39.
- 박선영. (2016). 한국사회 증상으로서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18(2), 40-77.
- 박일혁, 엄한주, & 이기봉. (2014). 체육학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이용의 문제점과 올바른 적용.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6(1), 1-22.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2014. 서울: 청람.
- 서울대 교육연구소 (1994).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 박선웅.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적 메타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5.
- 황진, 김성옥 (2007). 자기관여, 자기고양과 사후과잉확신.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2), 93-104.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 Alexander, F. (1938). Remarks about the relation of inferiority feelings to guilt feeling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19, 41.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Oxford, England: Holt, Reinhart & Winston.
- Allen, M. S., Greenlees, I., & Jones, M. (2011). *An investig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coping*

- behaviour in sport. Journal of sports sciences*, 29(8), 841–850.
- Allen, M. S., & Laborde, S. (2014). The role of personality in sport and physical ac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6), 460–46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uthor.
- Ames, D. R., & Kammrath, L. K. (2004). Mind-reading and metacognition: Narcissism, not actual competence, predicts self-estimated ability.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8(3), 187–209.
- Ames, D. R., Rose, P., & Anderson, C. P. (2006). The NPI-16 as a short measure of narciss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4), 440–450.
- Arthur, C. A., Woodman, T., Ong, C. W., Hardy, L., & Ntoumanis, N. (2011). The role of athlete narcissism i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aches' transformational leader behaviors and athlete motiv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3(1), 3–19.
- Back, M. D., K fner, A. C., Dufner, M., Gerlach, T. M., Rauthmann, J. F., & Denissen, J. J. (2013). Narcissistic admiration and rivalry: Disentangling the bright and dark sid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105(6), 1013.
-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1), 1–26.
- Boateng, G. O., Neilands, T. B., Frongillo, E. A., Melgar-Quíñonez, H. R., & Young, S. L. (2018).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scales for health,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a primer. *Frontiers in Public Health*, 6.
- Bosson, J. K., Lakey, C. E., Campbell, W. K., Zeigler-Hill, V., Jordan, C. H., & Kernis, M. H. (2008). Untangling the links between narcissism an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3), 1415–1439.
- Brown, R. P., Budzek, K., & Tamborski, M. (2009). On the meaning and measur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7), 951–964.
- Brummelman, E., Thomaes, S., Nelemans, S. A., De Castro, B. O., Overbeek, G., & Bushman, B. J. (2015). Origins of narcissism in childre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2(12), 3659–3662.
- Buffardi, L. E.,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1303–1314.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638–656.
- Campbell, W. K., Bonacci, A. M., Shelton, J., Exline, J. J., & Bushman, B. J. (2004). Psychological entitlement: Interpersonal consequences and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3(1), 29–45.
- Campbell, W. K., Brunell, A. B., & Finkel, E. J. (2006). Narcissism, Interpersonal Self-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s: An Agency Model Approach. In K. D. Vohs & E. J. Finkel (Eds.), *Self and relationships: Connecting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es* (pp. 57–83).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Campbell, W. K., & Campbell, S. M. (2009). On the self-regulatory dynamics created by the peculiar benefits and costs of narcissism: A contextual reinforcement model and examination of leadership. *Self and Identity*, 8(2–3), 214–232.
- Campbell, W. K., & Foster, J. D. (2007). *The narcissistic self*: Background, an extended agency model, and ongoing controversies. *The self*, 115–138.
- Campbell, W. K., Reeder, G. D., Sedikides, C., & Elliot, A. J. (2000). Narcissism and comparative self-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4(3), 329–347.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hang, J., Fresco, J., & Green, B. (2014). The development and

- validation of the Compassion of Others' Lives Scale (the COOL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4(5), 33–42.
- Chatterjee, A., & Hambrick, D. C. (2007). It's all about me: Narcissistic chief executive officers and their effects on company strategy and performan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52(3), 351–386.
- DeWall, C. N., Pond Jr, R. S., Campbell, W. K., & Twenge, J. M. (2011). *Tuning in to psychological change: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motions over time in popular US song lyrics*.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3), 291–300.
- Eynseck, M. (1982). *Attention and arousal. Cognition and Performance*. Berlin: Springer.
- Fabrigar, L. R., Wege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 J. (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3), 272.
- Fukuyama, F. (2017). *The great disruption*. Profile Books.
- Freud, S. (1914/1957).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pp. 67–104).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55). *Libidinal types*. London, England: Hogarth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1)
- Gabriel, M. T., Critelli, J. W., & Ee, J. S. (1994). Narcissistic illusions in self-evaluations of intelligence and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62(1), 143–155.

- Gee, C. J., Marshall, J. C., & King, J. F. (2010). Should coaches use personality assessments in the talent identification process? A 15 year predictive study on professional hockey play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aching Science*, 4(1).
- Geukes, K., Mesagno, C., Hanrahan, S. J., & Kellmann, M. (2012). Testing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performance under public pressur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3(3), 243–250.
- Geukes, K., Mesagno, C., Hanrahan, S. J., & Kellmann, M. (2013). Activation of self-focus and self-presentation traits under private, mixed, and public pressur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5(1), 50–59.
- Glesne, C. (1999). *Becoming a qualitative researcher: An introduction*(2nd). Reading, MA: Addison, Wesley Longman, Inc.
- Gould, D., Greenleaf, C., Chung, Y., & Guinan, D. (2002). A survey of US Atlanta and Nagano Olympians: Variables perceived to influence performanc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3(2), 175–186.
- Grijalva, E., Newman, D. A., Tay, L., Donnellan, M. B., Harms, P. D., Robins, R. W., & Yan, T. (2015).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61.
- Hair, J. F., Anderson, R. E., Babin, B. J., & Black, W. C.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A global perspective* (Vol. 7).
- Hardy, L., & Hutchinson, A. (2007). Effects of performance anxiety on effort and performance in rock climbing: A test of processing efficiency theory. *Anxiety, stress, and coping*, 20(2), 147–161.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588–599.
- Hu, L., & Bentler, P.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EM vol. 6*(1), pp. 1–55.
- Hyler, S. E. (1994). Personality diagnostic questionnaire–4. New York: New York State Psychiatric Institute.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the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206.
- Jones, E. (1913). *The god complex*. Essays in applied psychoanalysis, 2, 244–265.
- Judge, T. A., LePine, J. A., & Rich, B. L. (2006). Loving yourself abundantly: Relationship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to self-and other perceptions of workplace deviance, leadership, and task and contextual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4), 762–775.
- Keller, H., Yovsi, R., Borke, J., Kartner, J., Jensen, H., & Papaligoura, Z.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recognition and self-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6), 1745–1760.
- Kernberg, O. F. (198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Rowman & Littlefield.
- Kitayama, S., & Markus, H. R. (1994). *Emotion and culture: Empirical studies of mutual influe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ramer, M., Wilborn, D., Spencer, C., Stevenson, B., & Dvorak, R. (2019). Protective Behavioral Strategies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tic Traits and Alcohol Pathology in College Student Drinkers. *Substance Use & Misuse*, 54(5), 863–867.
- Krizan, Z., & Herlache, A. D. (2017). The narcissism spectrum model: A synthetic view of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9.
- Krizan, Z., & Johar, O. (2012). Envy divides the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80(5), 1415–1451.
- Krizan, Z., & Johar, O. (2015). Narcissistic rage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8(5), 784.
- Kwiatkowska, Jułkowski, Rogoza, Żemojtel-Piotrowska, & Fatfouta. (2019). Narcissism and trust: Differential impact of agentic, antagonistic, and communal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7, 139–143.
-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ew York: Norton.
- Lawrence, E. J., Shaw, P., Baker, D., Baron-Cohen, S., & David, A. S. (2004). Measuring empath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Empathy Quotient. *Psychological medicine*, 34(5), 911–920.
- Levi, & Bachar. (2019). The moderating role of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and PTSD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8, 292–297.
- Levy, K. N., Ellison, W. D., & Reynoso, J. S. (2011). *A historical review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 disorder, 3–13.
- Liu, Li, Hao, & Zhang. (2019). Narcissism and learning from entrepreneurial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4(3), 496–512.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1), 84.
- Martens, R., Vealey, R. S., & Burton, D. (1990). *Competitive anxiety in sport*. Human kinetics.
- Martinsen, &., Arnulf, J., Furnham, A., & Lang-Ree, O. (2019). Narcissism and crea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166–171.
- Matosic, D., Ntoumanis, N., Boardley, I. D., Sedikides, C., Stewart, B. D., & Chatzisarantis, N. (2017). Narcissism and coach interpersonal styl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Scandinavian journal of medicine & science in sports*, 27(2), 254–261.
- McCall, M. W. (1986).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s*, by Bernard M. Bass.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191.
- Miller, J. D., & Campbell, W. K.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3), 449–476.
- Miller, J. D., & Campbell, W. K. (2010). The case for using research on trait narcissism as a building block for understanding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ersonality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1, 180–191. doi: 10.1037/a0018229
- Millon, T. (1998). *DSM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Historical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 In E. F.

-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75–101).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III, axis II. John Wiley & Sons.
- Morf, C. C., & Rhodewalt, F. (2001). Expanding the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of narcissism: Research directions for the future. *Psychological Inquiry*, 12(4), 243–251.
- Morf, C. C., Weir, C., & Davidov, M. (2000). Narcissism and intrinsic motivation: The role of goal congrue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4), 424–438.
- Morgan, W. P., & Johnson, R. W. (1978).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oarsme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9(2), 119–133.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yers, D. G. (2001). *The American paradox: Spiritual hunger in an age of plenty*. Yale University Press.
- Nacke, P. (1899). Die sexuellen perversitäten in der irrenanstalt. *Psychiatrische en Neurologische Bladen*, 3, 20–30.
- Nardis, Y., & Panek, E. (2019). Explaining Privacy Control on Instagram and Twitter: The Roles of Narcissism and Self-Esteem.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36(1), 24–34.
- Nemiah, J. C. (1961). Foundations of psychopat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 Olejnik, S., & Algina, J. (2000). Measures of effect size for comparative studies: Applications, interpretations, and limita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3), 241–286.

- O' rourke, D. J., Smith, R. E., Smoll, F. L., & Cumming, S. P. (2014). Relations of parent-and coach-initiated motivational climates to young athletes' self-esteem, performance anxiety, and autonomous motivation: who is more influential?.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6(4), 395–408.
- Papageorgiou, Denovan, & Dagnall. (2019). The positive effect of narcissism on depressive symptoms through mental toughness: Narcissism may be a dark trait but it does help with seeing the world less grey. *European Psychiatry*, 55, 74–79.
- Pervin, L. A. (2003). *The science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incus, A. L., Ansell, E. B., Pi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365.
- Poropat, A. E. (2009). A meta-analysi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135(2), 322.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

- Reich, A. (1960). Pathologic forms of self-esteem regulat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15(1), 215–232.
- Reich, W. (1949). Character analysis (3rd ed.).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Original work published 1933).
- Rhodewalt, F., Madrian, J. C., & Cheney, S. (1998). Narcissism, self-knowledge organization, and emotional reactivity: The effect of daily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a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 75–87.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1), 1–23.
- Roberts, B. W., & Helson, R. (1997). Changes in culture, changes in personality: the influence of individualism in a longitudinal study of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41. Chicago
- Roberts, R., Callow, N., Hardy, L., Woodman, T., & Thomas, L. (2010). Interactive effects of different visual imagery perspectives and narcissism on motor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4), 499–517.
- Roberts, R., Woodman, T., Hardy, L., Davis, L., & Wallace, H. M. (2013). Psychological skills do not always help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narcissism.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25(3), 316–325.
- Roberts, R., Woodman, T., Lofthouse, S., & Williams, L. (2015). Not all players are equally motivated: The role of narcissism.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15(6), 536–542.
- Roberts, R., Woodman, T., & Sedikides, C. (2017). Pass me the ball: narcissism in performance settings. *International*

-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24.
- Robins, R. W., & John, O. P. (1997). Effects of visual perspective and narcissism on self-perception: Is seeing believing?. *Psychological Science*, 8(1), 37–42.
- Rohmann, E., Hanke, S., & Bierhoff, H. (2019).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in Relation to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elf-Construal.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1–10.
- Ronningstam, E. (2005).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Ronningstam, E. (2011). *Psychoanalytic theorie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The handbook of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Theoretical approaches, empirical findings, and treatments, 41–55.
- Rubin, A., & Babbie, E. R. (2016). *Empowerment series: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Cengage Learning.
- Santos, H. C., Varnum, M. E., & Grossmann, I. (2017). Global increases in individualism. *Psychological science*, 28(9), 1228–1239.
- Schroder-Abe, M., Fatfouta, R., & Schroeder-Abe, M. (2019). Shades of narcissistic dishonesty: Grandiose versus vulnerable narcissism and the role of self-conscious emotion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71, 148–158.
- Sedikides, C., & Gregg, A. P. (2001). Narcissists and feedback: Motivational surfeits and motivational deficits. *Psychological Inquiry*, 12(4), 237–239.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3), 400.

- Seligman, M. E. (1990). *Why is there so much depression today? The waxing of the individual and the waning of the commons*. In Contemporary psychological approaches to depression (pp. 1–9). Springer, Boston, MA.
- Sherman, D. K., & Kim, H. S. (2005). Is there an "I" in "team"? The role of the self in group-serving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08.
- Smith, N. C., Bellamy, M., Collins, D. J., & Newell, D. (2001). A test of processing efficiency theory in a team sport context. *Journal of Sports Sciences*, 19(5), 321–332.
- Trzesniewski, K. H., Donnellan, M. B., & Robins, R. W. (2008). Do today's young people really think they are so extraordinary? An examination of secular trends in narcissism and self-enhancement. *Psychological Science*, 19(2), 181–188.
- Twenge, J. M. (2000). *The age of anxiety? The birth cohort change in anxiety and neuroticism, 1952–1993*.
- Twenge, J. M. (2001). Birth cohort changes in extraversion: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66–1993.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5), 735–748.
- Twenge, J. M., Abebe, E. M., & Campbell, W. K. (2010). Fitting in or standing Out: Trends in American parents' choices for children's names, 1880–2007.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19–25.
- Twenge, J. M., & Foster, J. D. (2010). Birth cohort increases in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1982–2009.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1), 99–106.
- Waelder, R. (1925). The psychoses: Their mechanisms and accessibility to influe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 Psycho-Analysis*, 6, 259.
- Wang, D. (2019).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extraversion, body-esteem,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and selfie-editing behavior on social networking si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6, 127–129.
- Wallace, H. M., & Baumeister, R. F. (2002). The performance of narcissists rises and falls with perceived opportunity for gl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5), 819.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0.
- Winner, N., Nicholson, Bonnie C., Batastini, Ashley, Dahlen, Eric, & Mohn, Richard. (2019). *Overparenting and Young Adult Narcissism: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personal Dependency as Mediators*,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 Woodman, T., Roberts, R., Hardy, L., Callow, N., & Rogers, C. H. (2011). There is an “I” in TEAM: Narcissism and social loafing.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2(2), 285–290.
- Wright, A. G., Lukowitsky, M. R., Pincus, A. L., & Conroy, D. E. (2010). The higher order factor structure and gender invariance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Assessment*, 17(4), 467–483.
- Wu, Wenqing, Wang, Hongxin, Zheng, Chundong, & Wu, Yenchun Jim. (2019). Effect of Narcissism,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The Mediating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Frontiers in Psychology*, 10, 360.
- Wylleman, P., & Lavallee, D. (2004).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Transitions Faced by Athletes. In M. R. Weiss (Ed.), *Developmental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A lifespan perspective* (pp. 503–523). Morgantown, WV: Fitness Information Technology.

Zeigler-Hill, V., Vrabel, J., McCabe, G., Cosby, C., Traeder, C., Hobbs, K., & Southard, A. (2019). Narcissism and the pursuit of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87(2), 310–327.

<부록 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1/3)

(n=17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															
2	0.23	1.00														
3	0.30	0.29	1.00													
4	0.64	0.32	0.46	1.00												
5	0.66	0.33	0.39	0.62	1.00											
6	0.64	0.30	0.28	0.48	0.56	1.00										
7	0.35	0.31	0.29	0.41	0.30	0.44	1.00									
8	0.42	0.39	0.34	0.37	0.39	0.44	0.69	1.00								
9	0.35	0.36	0.26	0.33	0.38	0.36	0.37	0.49	1.00							
10	0.38	0.32	0.29	0.27	0.42	0.32	0.26	0.39	0.50	1.00						
11	0.15	0.27	0.32	0.20	0.23	0.26	0.22	0.29	0.38	0.41	1.00					
12	0.26	0.17	0.43	0.30	0.30	0.19	0.19	0.23	0.32	0.45	0.59	1.00				
13	0.36	0.37	0.21	0.36	0.35	0.37	0.35	0.35	0.36	0.34	0.38	0.37	1.00			
14	0.31	0.23	0.36	0.29	0.36	0.39	0.35	0.37	0.32	0.43	0.45	0.36	0.33	1.00		
15	0.39	0.16	0.29	0.25	0.38	0.35	0.15	0.23	0.48	0.40	0.34	0.33	0.35	0.55	1.00	
16	0.33	0.10	0.24	0.32	0.32	0.31	0.24	0.34	0.39	0.51	0.39	0.34	0.25	0.51	0.57	1.00
17	0.07	0.05	0.23	0.13	0.14	0.13	0.18	0.17	0.22	0.36	0.31	0.30	0.12	0.32	0.22	0.36
18	0.24	0.15	0.31	0.22	0.29	0.28	0.05	0.17	0.32	0.33	0.38	0.31	0.17	0.33	0.31	0.38
19	0.35	0.24	0.25	0.36	0.32	0.44	0.17	0.29	0.29	0.42	0.38	0.34	0.39	0.42	0.31	0.48
20	0.30	0.13	0.31	0.27	0.27	0.29	0.20	0.30	0.24	0.49	0.33	0.39	0.23	0.46	0.35	0.52
21	0.24	0.08	0.25	0.20	0.23	0.22	0.03	0.17	0.24	0.49	0.38	0.43	0.19	0.43	0.43	0.51
22	0.24	-06	0.12	0.21	0.19	0.18	0.09	0.15	0.19	0.43	0.25	0.29	0.08	0.40	0.36	0.55
23	0.29	0.31	0.27	0.31	0.27	0.31	0.22	0.38	0.48	0.57	0.36	0.42	0.23	0.35	0.26	0.44
24	0.07	0.17	0.19	0.15	0.10	0.18	0.11	0.16	0.26	0.39	0.33	0.32	0.18	0.27	0.19	0.37
25	0.24	0.27	0.26	0.31	0.29	0.28	0.30	0.38	0.28	0.45	0.31	0.32	0.32	0.30	0.18	0.31
26	0.20	0.30	0.25	0.28	0.30	0.30	0.23	0.35	0.31	0.54	0.38	0.37	0.24	0.37	0.20	0.39
27	0.12	0.17	0.26	0.22	0.17	0.19	0.18	0.14	0.44	0.34	0.25	0.27	0.20	0.35	0.33	0.30
28	0.26	0.33	0.17	0.28	0.29	0.37	0.38	0.52	0.24	0.25	0.26	0.24	0.33	0.22	0.00	0.18
29	0.25	0.26	0.20	0.12	0.25	0.31	0.34	0.44	0.18	0.16	0.12	0.15	0.23	0.22	0.06	0.13
30	0.18	0.47	0.20	0.25	0.31	0.37	0.43	0.52	0.29	0.32	0.21	0.14	0.32	0.30	0.09	0.22
31	0.14	0.36	0.10	0.16	0.19	0.26	0.28	0.26	0.13	0.16	0.08	0.04	0.24	0.12	0.01	0.03
32	0.06	0.10	-15	0.00	0.10	0.06	0.15	0.14	-03	-03	0.03	-12	0.16	0.02	-01	-04
33	0.15	0.05	0.03	0.18	0.25	0.15	0.13	0.09	0.16	0.07	0.15	0.12	0.21	0.28	0.15	0.11
34	0.08	0.09	0.08	0.16	0.14	0.10	0.09	0.03	0.02	0.00	0.10	0.05	0.11	0.17	0.04	0.06
35	0.04	0.08	0.05	0.10	0.15	0.12	0.11	0.10	0.08	0.09	0.16	0.11	0.11	0.22	0.13	0.22
36	0.21	0.24	0.09	0.05	0.23	0.31	0.29	0.42	0.18	0.18	0.16	0.01	0.16	0.26	0.13	0.18

<부록 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2/3)

(n=174)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7	1.00															
18	0.29	1.00														
19	0.27	0.47	1.00													
20	0.18	0.30	0.58	1.00												
21	0.13	0.37	0.40	0.53	1.00											
22	0.12	0.25	0.38	0.56	0.73	1.00										
23	0.23	0.29	0.48	0.49	0.60	0.54	1.00									
24	0.05	0.30	0.32	0.34	0.51	0.37	0.57	1.00								
25	0.17	0.18	0.30	0.38	0.31	0.27	0.49	0.53	1.00							
26	0.18	0.35	0.40	0.49	0.49	0.41	0.67	0.58	0.64	1.00						
27	0.25	0.21	0.32	0.30	0.29	0.29	0.36	0.33	0.25	0.34	1.00					
28	0.07	0.01	0.28	0.21	0.14	0.15	0.30	0.22	0.43	0.39	0.10	1.00				
29	0.13	0.01	0.15	0.15	0.03	0.08	0.19	0.12	0.31	0.28	0.07	0.67	1.00			
30	0.20	0.12	0.33	0.17	0.12	0.01	0.40	0.27	0.47	0.42	0.20	0.54	0.51	1.00		
31	0.03	0.00	0.20	0.05	0.06	-0.01	0.18	0.20	0.39	0.35	0.00	0.37	0.40	0.48	1.00	
32	0.05	-0.01	0.05	-0.11	-0.17	-0.08	-0.11	-0.03	0.16	0.09	-0.12	0.22	0.17	0.18	0.33	1.00
33	0.06	0.15	0.14	0.05	0.18	0.19	0.14	0.09	0.23	0.15	0.16	0.15	0.16	0.22	0.22	0.28
34	0.09	0.18	0.14	0.00	0.07	0.10	0.04	0.03	0.06	0.06	0.08	0.14	0.08	0.11	0.05	0.15
35	0.17	0.25	0.15	0.14	0.16	0.15	0.19	0.13	0.14	0.21	0.09	0.15	0.14	0.20	-0.01	0.17
36	0.06	0.14	0.19	0.06	0.12	0.11	0.23	0.19	0.33	0.31	-0.06	0.40	0.45	0.48	0.47	0.31

<부록 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3/3)

(n=174)

	33	34	35	36
33	1.00			
34	0.56	1.00		
35	0.44	0.69	1.00	
36	0.34	0.19	0.25	1.00

<부록 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1/2)

(n=17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00															
2	0.30	1.00														
3	0.64	0.46	1.00													
4	0.66	0.39	0.62	1.00												
5	0.64	0.28	0.48	0.56	1.00											
6	0.35	0.26	0.33	0.38	0.36	1.00										
7	0.36	0.21	0.36	0.35	0.37	0.36	1.00									
8	0.33	0.24	0.32	0.32	0.31	0.39	0.25	1.00								
9	0.35	0.25	0.36	0.32	0.44	0.29	0.39	0.48	1.00							
10	0.30	0.31	0.27	0.27	0.29	0.24	0.23	0.52	0.58	1.00						
11	0.24	0.25	0.20	0.23	0.22	0.24	0.19	0.51	0.40	0.53	1.00					
12	0.24	0.12	0.21	0.19	0.18	0.19	0.08	0.55	0.38	0.56	0.73	1.00				
13	0.29	0.27	0.31	0.27	0.31	0.48	0.23	0.44	0.48	0.49	0.60	0.54	1.00			
14	0.07	0.19	0.15	0.10	0.18	0.26	0.18	0.37	0.32	0.34	0.51	0.37	0.57	1.00		
15	0.12	0.26	0.22	0.17	0.19	0.44	0.20	0.30	0.32	0.30	0.29	0.29	0.36	0.33	1.00	
16	0.26	0.17	0.28	0.29	0.37	0.24	0.33	0.18	0.28	0.21	0.14	0.15	0.30	0.22	0.10	1.00
17	0.25	0.20	0.12	0.25	0.31	0.18	0.23	0.13	0.15	0.15	0.03	0.08	0.19	0.12	0.07	0.67
18	0.18	0.20	0.25	0.31	0.37	0.29	0.32	0.22	0.33	0.17	0.12	0.01	0.40	0.27	0.20	0.54
19	0.14	0.10	0.16	0.19	0.26	0.13	0.24	0.03	0.20	0.05	0.06	-0.01	0.18	0.20	0.00	0.37
20	0.15	0.03	0.18	0.25	0.15	0.16	0.21	0.11	0.14	0.05	0.18	0.19	0.14	0.09	0.16	0.15
21	0.08	0.08	0.16	0.14	0.10	0.02	0.11	0.06	0.14	0.00	0.07	0.10	0.04	0.03	0.08	0.14
22	0.04	0.05	0.10	0.15	0.12	0.08	0.11	0.22	0.15	0.14	0.16	0.15	0.19	0.13	0.09	0.15

<부록 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2/2)

(n=174)

	17	18	19	20	21	22
17	1.00					
18	0.51	1.00				
19	0.40	0.48	1.00			
20	0.16	0.22	0.22	1.00		
21	0.08	0.11	0.05	0.56	1.00	
22	0.14	0.20	-0.01	0.44	0.69	1.00

<부록 3> 최종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계수

(n=17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00																
2	0.64	1.00															
3	0.66	0.62	1.00														
4	0.64	0.48	0.56	1.00													
5	0.33	0.32	0.32	0.31	1.00												
6	0.30	0.27	0.27	0.29	0.52	1.00											
7	0.24	0.20	0.23	0.22	0.51	0.53	1.00										
8	0.24	0.21	0.19	0.18	0.55	0.56	0.73	1.00									
9	0.29	0.31	0.27	0.31	0.44	0.49	0.60	0.54	1.00								
10	0.07	0.15	0.10	0.18	0.37	0.34	0.51	0.37	0.57	1.00							
11	0.26	0.28	0.29	0.37	0.18	0.21	0.14	0.15	0.30	0.22	1.00						
12	0.25	0.12	0.25	0.31	0.13	0.15	0.03	0.08	0.19	0.12	0.67	1.00					
13	0.18	0.25	0.31	0.37	0.22	0.17	0.12	0.01	0.40	0.27	0.54	0.51	1.00				
14	0.14	0.16	0.19	0.26	0.03	0.05	0.06	-.01	0.18	0.20	0.37	0.40	0.48	1.00			
15	0.15	0.18	0.25	0.15	0.11	0.05	0.18	0.19	0.14	0.09	0.15	0.16	0.22	0.22	1.00		
16	0.08	0.16	0.14	0.10	0.06	0.00	0.07	0.10	0.04	0.03	0.14	0.08	0.11	0.05	0.56	1.00	
17	0.04	0.10	0.15	0.12	0.22	0.14	0.16	0.15	0.19	0.13	0.15	0.14	0.20	-.01	0.44	0.69	1.00

<부록 4>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척도

요 인	문항
자기중요성	1.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한다.
	2. 내가 연습하고 싶은 것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길 요구한다.
	3. 훈련 프로그램을 본인 수행향상에 맞게 집중해서 짜주길 바란다.
	4. 경기장에서 내 루틴에 맞춰 모두가 따라주길 요구한다.
자기홍보성	5. 나는 시합장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다.
	6. 나는 시합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즐긴다.
	7. 나의 운동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8. 관중이 많은 대회에서 나의 능력을 더욱 뽐내고 싶다.
	9. 여러 매체에서 나에 대해 다루는 것을 즐긴다.
	10. 일상생활에서 내가 운동선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면 좋겠다.
자기방어성	11. 지도자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12.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13.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
	14. 이기지 못할 시합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과민성	15.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16.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 하면 매우 화가 난다.
	17. 내 운동능력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 가 없다.

<부록 5>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요 인	문항
자기 기 만	1. 나는 자신을 잘 통제 한다
	2. 나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3. 나는 자신에 대해 항상 정직하다.
	4.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없는 편이다.
	5. 나는 논쟁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다.
	6.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
	7. 내가 한 결정은 항상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8. 나의 언행에는 항상 흐트러짐이 없다.
	9.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을 돕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10. 나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11. 나는 항상 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2. 내 기분이 나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대한다.
	13. 나는 남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14.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는 없다.
	15. 노인이 내 앞에 서있으면 자리를 양보한다.
인 상 관 리	16. 부유한 사람보다는 인간성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17. 나는 때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흥본다.
	18.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픈 척”을 한다.
	19. 나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20. 남의 도움을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21. 손님이 그만 가주기를 바라면서도 붙잡는 척을 한다.
	22. 누가 나에게 일을 시키면 바쁜 척 한다.
	23. 상대방부터 대접을 받고 싶어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한다.
	24.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지만 겉으로는 겸손하게 행동한다.

<부록 6> 나르시시즘 성격특성 척도

요인	문항
응대적 나르시시즘 성격특성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3.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5.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
	6.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7. 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8.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9. 누구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
	11. 나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12.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 같다.
	13.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14. 나는 누구에게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믿게 할 수 있다.
	1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16.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Abstract

The Conceptualization of Athletes Narcissism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Sangwook Ka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ies on narcissism have been conducted in sports recently, only certain characteristics of narcissism, have been studied, and the measures of narcissism used in these studies have all been developed for the general public or patients which have been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Thu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athlete narcissism was established and measured for Korean athlete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of narcissism, with reference to the model of narcissism spectrum (Krizan & Herlache, 2017), taking into account the situational specificity of athletes.

In <Study 1>, in-depth interviews (n=10) and open ended questionnaires (n=72) were conducted on the national team of

individual and team sports, professionals, former and incumbent leaders and athletes belonging to universities. As a result, the contents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narcissism in training, competition conditions and daily life of athletes were derived and finally established as the total of four factors: self-importance, self-display, self-hypersensitiveness and self-defensiveness.

<Study 2> has developed a measurement tool to measure athlete narcissism levels based on results derived from <Study 1>. The initial 41 preliminary questions were prepared and the preliminary examination paper consisting of 36 questions was produced through a meeting of experts.

A total of 348 individuals, including 146 people from individual sports, 202 from team sports took the survey. Collected data were utilized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questions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actor analysis. It was then used for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174) using the sample-split approach. 348 samples were used for validity verific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the preliminary questions were not affected by the social desirability,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question and the social desirability allow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questions to be found that .30 (Change, Fresco, & Green, 2014; Lawrence et al., 2004) was not more than the standard when developing the scales.

Verifying factor analysis shows that all of the model's suitability is unsuitable. Thus, after removing 19 questions that showed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below 0.60,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for the final factor of 17,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relative totals were all suitable models as they met the reference values. Later,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was verified by an

internal compatibility analysis using the entire data (Cronbach' α = .852).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concurrent validity and the cross validity were verified, and the equivalence between groups based on gender, and the type of events were verified to measure the same contents among groups, and the possibility of further study in relation to group differences could be examined.

With the athlete narcissism scale developed from this study, coaches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cissism characteristics of athletes, and researchers can use them for further research between athlete narcissism and related variables.

keywords : narcissism, personality, athletes narcissism scale

Student Number : 2014-30518